

경북의사회가_만들어가는_따뜻한 이야기

경북의사회회보

2011 Spring Vol.41

공지사항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사전등록) 안내

2011년도 의사 연수교육 이수 확인 변경 안내



경상북도 의사회

Gyeongbuk Medical Association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 NO.1!



부신피질호르몬제

피디^정

메칠프레드니솔론



원료약품의 분량 1정 중

메칠프레드니솔론(U.S.P) ······ 4mg

효능 · 효과

1. 피부질환 : 천포창,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박탈성 피부염, 수포성 포진양 피부염, 중증 지루성 피부염, 중증 건선, 균상식 육종
2. 알레르기성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혈청병, 계절성 또는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과민반응
3. 교환성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 신염),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4. 내분비 장애 5. 류마티스성 장애
6. 안과 질환 7. 위장관계 질환 8. 호흡기계 질환
9. 혈액 질환 10. 악성 종양성 질환 11. 부종성 질환 12. 신경계 질환 13. 기타

보 험 코 드 A21950881

피디^정의 주성분인 **Methylprednisolone**은 기존 Prednisolone보다 **항염효과**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Mineralocorticoid의 작용이 약하므로 부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낮은 부신피질 호르몬제제입니다.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64 대륭테크노타운 13차 3층 / TEL:02)2109-3300 • FAX:02)2109-3388





표지설명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전경

발행인 이석균 편집인 김종영
 발행일 2011년 4월 25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편집위원장 김재왕
 편집위원 김중영·문기혁·김종규·장태영
 71012-81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대현동)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홈페이지 www.igbma.or.kr
 제작처 선진에드_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00-5
 TEL. (053)555-3336 FAX. (053)556-3273

- 4 특별기고
경상북도교육청 이영우 교육감
- 5 포토뉴스
- 8 회무소식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 12 회무단신 · 회원동정
- 16 수상자에게 듣는다
- 18 신임 시군의사회장 소식
- 20 공지사항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안내
2011년도 의사 연수교육 이수 확인 변경 안내
- 25 분회 및 병원소식
- 32 지역의사회 탐방
문경시의사회 / 예천군의사회
- 37 연구보고서
의약품 조제료 이대로 좋은가? · 본회 의약품정책위원회
- 39 회원문예
시_삼월의 눈 · 김용주
 납매 · 신명준
수필_바늘 · 이종규
 箒詞_떠나는 그 길이 봄날처럼 포근하기를... · 최동하
- 46 의료봉사기
아프리카, 아직도 가난하고 위험하였습니다 · 정만진
- 51 의학 및 건강칼럼
틱(tic)? 틱 장애(Tic disorder)? · 성형모
- 54 의료기관 개원현황

본회 주요 연중행사 일정

- | | | | |
|----------------|--------------------|-------------|--------------------|
| 2011. 4. 7 | 제39회 보건의 날 기념식 | 2011. 10. | 제43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
| 2011. 4. 24 | 제63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 2011. 11. 6 | 경북의사회 추계학술대회 |
| 2011. 4. 25 | 제41호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 2011. 12. | 연말 복지시설 방문 |
| 2011. 5. | 2011년도 회원정기신고 | 2012. 1. |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 |
| 2011. 5. 15 | 대구 · 경북 권역별 종합학술대회 | 2012. 1. | 제44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
| 2011. 5. 22 |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계룡산) | 2012. 3. 3 | 2011년도 전체이사회 |
| 2011. 5. 28~29 |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 2012. 3. | 2011년도 회무감사 |
| 2011. 6. | 제42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 2012. 3. |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
| 2011. 10. | 전북 · 경북의사회 친선행사 | | |



우리 지역 사회를 데우는 따뜻한 이야기의 보고(寶庫)가 되기를...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쉬임 없는 작업’이라는 조병화 시인의 시구(詩句)처럼 온누리에 새 생명을 싹 틔우는 기운이 만연한 약동의 계절에 경북의사회보姆호를 출간하게 된 것을 경북의 모든 교육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통권 41호에 이르기까지 원숙함을 더해 가는 잡지로서 회보 부제(副題)를 ‘경북의사회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라 한 것이 꼭 인상적입니다. 이 부제를 접하는 순간, 제게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지난 3월 2일 신학기를 시작하던 날 우리 교육청 직원 교육차 함께 시청했던 휴먼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가 남겨 준 여운(餘韻)입니다. 고(故) 이태석 신부가 수단의 톤즈 마을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술(醫術)을 베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쌓여가던 감동은, 브라스밴드 단원 아이들이(李) 신부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우리 말로 ‘사랑해 당신을’이란 노래를 부르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눈시울을 적실 정도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고(故) 이태석 신부가 베풀고 가르친 것은 의술(醫術)과 음악이었지만, 톤즈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받은 것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연이어 떠오르는 다른 하나의 생각은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 벌이고 있는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사업인 ‘사랑으로 희망을 심는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2006년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음으로써 전국 확산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백혈병, 심장병 등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을 도움으로써 ‘나눔과 베풀’의 참사랑을 실천하고자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4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59개 병원과 계약을 체결, 선택 진료비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의사회에서도 우리 도교육청의 이 사업에 많은 성원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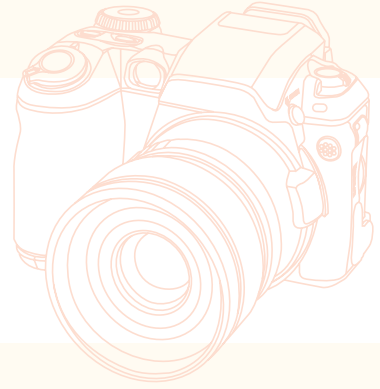
존경하는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

이석균 회장님께서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밝혔듯이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사회와 연계한 불우 시설 방문, 국내 취약지역 무료 진료 봉사, 재난·재해 시를 대비한 의료 봉사단 창단, 경북 큰 만남 행사 무료 진료’ 등의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 사회의 중추적인 지도자로서 회원 여러분께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노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더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고령화 사회 대비에도 의사회 회원 여러분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서울 화곡동에서 일어난 할머니들의 폐지(廢紙) 싸움 사건은 우리에게 고령화 사회의 그늘을 밝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농어촌에 사는 노인들의 경우도 심각성은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어촌 독거노인들의 경우도 5명 중 4명이 월 소득 50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며, 이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라고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고령화 사회 대비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만,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농어촌 지역이 넓은 우리 도내 독거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좀더 애써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회보 41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모쪼록 경북 의사회보가 훈훈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서 먼 훗날까지 우리 지역 사회를 데우는 ‘따뜻한 이야기’의 보고(寶庫)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북의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축원합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이 영 우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6일(토) 오후 6시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1. 개회식 장면
2. 총회참석한 주요내빈들



Photo News

- 1.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
- 3. 이석균 본회회장의 인사
- 3. 이삼걸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의 축사
- 4. 신원형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의 치사



- 5. 의협모범회원 표창
- 6. 본회 학술상 및 봉사상 시상
- 7. 모범분회 표창(경산시의사회)
- 8. 유공회원표창
- 9. 대외시상
- 10. 모범위원표창
- 11. 대대표창





10



11



12



- 12. 신은식(좌), 이봉구(우) 대의원의 발언
- 13. 한형원 기획이사의 사회
- 14. 박경옥 감사의 감사보고
- 15. 백승인 의약품정책위원장의 조제로 실태보고
- 16. 보조 위원들



13



14



15



보조위원석

16



경상북도의회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서 의권 신장을 위한 정책 연구사업 등 이를 뒷받침하는 4억6천만원 예산 확정



본회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6일(토) 오후 6시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하고 금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이삼걸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신원형 의협 상근부협회장, 이원기 의협 부의장, 김제형 대구시의사회장, 한형국 경북약사회장, 고순희 경북간호사회 신임회장, 본회 신은식·변영우 고문과 김춘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 본부장, 김성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 동원약품 현준호 부사장 등 내빈 다수와 대의원 60명(재적 78명)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의사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치부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굴레를 쓰고 꽃샘추위보다 더한 분노의 한기를 느꼈다. 하지만 23년이나 끌어오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됐고,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예산확보, 1차의료활성화가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돼 한 가닥 봄의 향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저수기문제, 총액계약제, 선택진료제, 성실세무신고제, 성분명처방, 진료과목에 따른 의료인력의 적정분배, 공공연히 이슈화하고 있는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힘을 합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의사회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 78명중 59명이 참석하여 회의성립을 선언하고
 전년도 총회 회의록 낭독과 감사보고는 이의없이 박수로서 통과시켰으며,
 2010년도 주요사업 및 회무 보고와 일반회계 및 적립금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지금 의료계는 의협회장과 회장간선제 문제 등 여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진행중에 있고, 윤리위 제소가 난무하고, 의협 홈페이지의 플라자에는 회원 상호간의 비방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욕설이 난무하고 있는 등, 도저히 소양을 갖춘 지식인들의 행태로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계의 대내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회원 모두의 단합”이라고 말했다.

이석균 본회 회장도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의사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최근 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의협 집행부의 노력이 많았고 회원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세무검증제도 도입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유가 어떻든 우리의 수장이 내부적인 문제로 검찰에 기소된 것은 의료계 위상을 추락시킨 것”이라며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하루빨리 내부 문제 정리되어서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회원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원형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경만호 회장을 대신한 축사에서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의협 집행부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건정심에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분쟁조정법은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일련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무검증제도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문제이며, 사무장병원·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이어 경상북도 이삼걸 행정부지사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총회 본회의에 앞서 백승인 의약품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의약품 조제료 이대로 좋은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고 있는 약국 조제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속개된 2부 본회의에서는 송준화(포항)·이홍우(경주)·문상웅(안동)·민명기(구미) 대의원을 보조위원으로 선정하고 대의원 78명중 59명이 참석하여 회의성립을 선언하고 전년도 총회 회의록 낭독과 감사보고는 이의없이 박수로서 통과시켰으며, 2010년도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시상자 명단

■ 대한의사협회장 표창

- 조현숙(계림내과의원, 경주)
- 박봉기(박내과의원, 문경)

■ 본회 대외시상

- 노병근(경북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관)
- 김난희(경상북도소방본부 지방소방위)
- 박중학(보건신문 대구지사장)
- 신영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심사평가부 과장)
- 이모범(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보험급여부 과장)
- 박미경(대한의사협회 홍보국 주임)

- 김혜진(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주임)

■ 본회 모범분회

- 경산시의사회(회장 박일영)

■ 본회 유공회원

- 이해철(경상북도포항의료원 신경외과)
- 조성범(한빛아동병원, 경주)
- 장태영(동산제통의원, 구미)
- 최재성(최재성이비인후과의원, 영천)
- 이우근(와촌의원, 경산)

■ 본회 모범위원

- 백승인(백승인소아청소년과의원, 경주)

- 김종영(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경산)
- 문기혁(포항성모병원 정형외과, 포항)

■ 본회 대내시상

- 문재준(포항세명기독병원 원무팀장)
- 황단비(문경제일병원 총무과)
- 권순길(경상북도의사회 차장)

■ 학술상 및 봉사상

- 우현재(CHA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 이비인후과 조교수)
- 정창근(사회복지법인 안동시온재단 대표이사)

회무소식

주요사업 및 회무 보고와 일반회계 및 적립금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1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계몽 의료제도의 조사연구사업 △의권신장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건강보험제도의 조사연구사업 △의료현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대의 및 대내 봉사사업 전개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 등의 2011년 새해 사업목표를 의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4억 6000만원을 확정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인상 △병의원 주5일 근무제 △건강검진 결과활용동의서 징구기관 변경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간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 중단 △약가를 조정해 저수가 보전 의료전달체계 및 기능 재정립 △총액계약제 논의 반대 △의약분업 재평가와 제도개

선 △보건의소의 기능 재정립 △의협 공제회 활성화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 △의협회장 사퇴 권고 △의약품 조제료 조정 △의료법인 사무장 병원 근절을 채택했다.

의협회장 사퇴 권고안과 관련 이봉구 경주시의사회장은 “일반회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엄청난 불만섞인 목소리를 듣는다.”며 “일반 회원들의 정서를 알아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사퇴 권고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반면, 신은식 경북의사회 고문은 “현재 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에 사퇴 권고안을 상정해도 늦지 않으며, 건의안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한 결과 찬성 35명(사퇴 권고안 상정) 반대 12명(사퇴 권고안 보류)으로 찬성표가 많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제 6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서

- 1) 세입총액 ₩490,934,740원 (자 : 2010. 4. 1)
- 2) 세출총액 ₩490,934,740원 (지 : 2011. 3. 31)

■ 총괄표 (단위 : 원)

세 입 부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증 △ 감
회 비	328,500,000	348,541,000	△20,041,000
기타수입	46,252,204	57,145,944	△10,893,740
이 월 금	85,247,796	85,247,796	
합 계	460,000,000	490,934,740	△30,934,740

세 출 부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증 △ 감
사 업 비	159,000,000	156,334,490	2,665,510
회 의 비	18,000,000	17,786,000	214,000
판 공 비	26,000,000	26,000,000	
경 조 비	15,000,000	14,910,000	90,000
활 동 비	44,000,000	39,410,000	4,590,000
사 무 비	112,100,000	111,915,520	184,480
적 립 금	20,000,000	20,000,000	
수 용 비	33,000,000	26,631,904	6,368,096
예 비 비	32,900,000	491,340	32,408,660
이 월 금		77,455,486	△77,455,486
합 계	460,000,000	490,934,740	△30,934,740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서

- 1) 세입총액 ₩460,000,000원 (자 : 2011. 4. 1)
- 2) 세출총액 ₩460,000,000원 (지 : 2012. 3. 31)

■ 총괄표 (단위 : 원)

세 입 부			
과 목	2011 예산액	2010 예산액	증 △ 감
회 비	334,500,000	328,500,000	△6,000,000
기타수입	48,044,514	46,252,204	△1,792,310
이 월 금	77,455,486	85,247,796	7,792,310
합 계	460,000,000	460,000,000	

세 출 부			
과 목	2011 예산액	2010 예산액	증 △ 감
사 업 비	160,000,000	159,000,000	△1,000,000
회 의 비	18,000,000	18,000,000	
판 공 비	28,000,000	26,000,000	△2,000,000
경 조 비	15,000,000	15,000,000	
활 동 비	44,000,000	44,000,000	
사 무 비	117,500,000	112,100,000	△5,400,000
적 립 금	20,000,000	20,000,000	
수 용 비	32,700,000	33,000,000	300,000
예 비 비	24,800,000	32,900,000	8,100,000
합 계	460,000,000	460,000,000	



의협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

1.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인상 건의

최근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시 상한액(15,000원) 초과로 인해 진료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환자 및 의료기관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인부담 정액제를 현실에 맞게 상향(20,000원) 조정

2. 병의원 주5일 근무제 건의

관공서와 기업체 대부분이 주5일제로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병의원도 주5일 근무제 시행할 것을 건의

3. 건강검진 결과활용동의서 징구기관 변경 건의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후 건강검진 결과활용동의서(강제사항 아님)를 받도록 한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징구할 수 있도록 변경 건의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간소화 건의

요양기관 진료비용 청구시 기재하는 상병분류기호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 진료비 청구시 어려움이 많으므로 최대한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

5. 건보공단의 횡포 중단 요구

모든 개원가를 범죄시하며 무차별적으로 심사해 준하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를 즉각 중단해야 함

6. 약가를 조정하여 저수가 보전 건의

의약분업 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약가를 OECD 평균으로 조정하여 생긴 기금을

낮게 책정된 진료비를 보전하는 기금으로 사용해 줄 것을 건의

7. 의료전달체계 및 기능 재정립 건의

교통수단의 편리성과 수도권 대형병원의 선호 등으로 환자 편중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기능 정립 및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건의

8. 총액계약제 논의 반대 건의

국민건강보험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총액계약제 시도를 중단해 줄 것을 건의

9. 의약분업 재평가와 제도개선 건의

의약분업제도가 10년이 되었지만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의 순기능이 나타나지 않고 제도 시행 이전보다 의료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건의

10.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 건의

보건소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과 아울러 선심성 사업으로 진행중인 무상의료(취약계층과 노인층)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가져옴은 물론 지역의료기관이 붕괴되고 있으므로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 건의

11. 의협 공제회 활성화 건의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협 공제회 의무가입과 배상공제에 많은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 회원서비스를 위한 합리적, 효율적 보상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개선안 검토 건의

12.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 건의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하여 국회 의원들이 원활한 정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회원의 바람직한 정치참여를 장려하고, 중앙 및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토록 건의

13. 의협회장 사퇴 권고

산적인 의료현안을 앞두고 정부에 맞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더욱이 갖가지 물의를 일으킨 경만호 회장은 더 이상의 협과 회원들의 분열을 초래하지 말고 사퇴할 것을 권고

14. 조제료 조정 건의

처방된 약을 분포지에 개별포장없이 단순히 1팩이나 1병, 1통(포일포장, PTP포장 등)으로 환자에게 건네줄때는 1일 조제료로 환원할 것을 건의

15. 의료법인 사무장 의원 근절 건의

의료법인의 무분별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개설됨으로 인해 결국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의료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으로 의료법인 사무장 의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건의

16. 기 타

2011년도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안내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2011년도	- 09:30 ~ 13:00 : 산행
회원 및 가족등반대회 일정과 준비사항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 13:00 ~ 15:00 : 점심식사 및 대한의사산악회 총회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15:00 : 행사종료

1. 산행일시: 2011년 5월 22일(일) 오전 9시 집결

2. 산행장소: 대전 유성구 계룡산 금수봉(532m)

3. 행사일정

- 09:00 : 계룡산 수통골지구 수통탐방지원센터
입구 지나 공터 도착

- 09:00 ~ 09:30 : 대한의사산악회 회장단 소개 및 인사

4. 등반코스(3시간 30분 소요)

- A코스: 수통탐방지원센터 → 수통폭포 → 수통골 → 금수봉
삼거리 → 금수봉 → 성북동삼거리 → 빈계산 → 능선
길 하산 → 수통골 분소 → 식당

- B코스: 성북동삼거리에서 작은수통골로 하산 → 수통골 분소
→ 식당

5. 참가자 명단: 5월 11일(수)까지 명단 보고

2010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 개최



지난 2011년 3월 5일(토) 오후 6시 호텔 제이스 에메랄드홀에서 2010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도 주요회무보고 및 (가)결산보고, 2011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른 예산(안)을 심의했다.

한형원 기획이사로부터 2010년도 주요사업 및 회무에 대한 보고와 의협의 새로운 CI(의협마크) 개발 관련 추진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장유석 재무이사로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가)결산보고와 각종 특별회계 적립금 (가)결산 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였다. 또한 2011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안)도 통과시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아울러 최경태 법제이사로부터 본회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본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 후 중앙윤리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키로 했다.

기타 토의사항으로는 △홈페이지 활성화 △회원단합을 위해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 △회보발간은 예산 범위내에서 발간키로 △회비납부를 위한 정기적인 홍보요청 △의약분업 재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과 적극 협조하여 의견을 개진키로 △시군의사회의 공식적인 행사로 초청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본회 제60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대의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2010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본회 윤리위원회 개최



지난 3월 3일(목) 오후 7시 30분 대구 사랑채식당에서 본회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

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한 본회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윤리위원회서는 최경태 간사(본회 법제이사)의 사회로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변영우 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영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무런 과오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윤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했으며, 이석균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개정 권고(안)에 대해 좋은 의견 개진 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했다.

이어 변영우 위원장 주재로 본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심의사항), 제10조(의결정족수), 제12조(결정의 효력), 제19조(재심청구 결정), 제23조(보고)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대로 개정키로 의결하고 본회 전체이사회 및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중앙윤리위원회의 인준을 받기로 했다.

본회 의약품정책위원회 개최

본회 의약품정책위원회(위원장 백승인)는 지난 2월 28일(월) 오후 7시 30분 경주시의사회관에서 의약품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0년 건보재정 적자원인 확인과 의약품 조제료 개선 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백승인 위원장과 김장희·이봉구 위원, 본회 이정기 의무이사과 박경대 회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자문위원으로 서보완(경주중앙병원)·박경대(박경대내과의원) 회원을 위촉키로 했다.



제2회 봉사상 심사위원회 개최



본회에서는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회원에 대해 경상북도의사회 봉사상을 수여키로 한 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공모한 접수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5일(토) 오후 9시 30분 호텔제이스에서

제2회 봉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일영 간사의 진행으로 조현숙 심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접수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본회 봉사상 시상 개요와 경과보고, 봉사상 심사기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는 후 공적심사(70점)와 의사회 기여도(20점), 공적기간(10점)을 주요 내용으로 심사위원별 100점 기준으로 본 심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최종 후보자는 본회 제24차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확정될 예정이다.

본회 봉사상은 동원약품의 후원으로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자 중에서 의사단체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진료, 교육, 문화, 육영, 체육, 예술, 지역사회 개발, 사회복지사업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펴 지역주민과 관련기관·단체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해 수여되며, 부상으로는 상패와 부상(금 1냥)이 주어진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본회 임원과 시군의사회 안배를 고려해 현직 회장(신청자의 소속 의사회장을 제외)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경북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본회는 지난 3월 31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2011 상반기 경상북도 구급대책 협의회 개최



119 구급대 응급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경상북도 구급대책 협의회가 2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경상북도 소방본부 회의실에서 이석균 구급대책협의회장(본회 회장)을 비롯한 정상인 부위원장(경북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등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2010년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과 2011년 중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구급활동 전문화 강화와 119구급서비스의 질적 향상 추진등의 논의와 더불어 2010년 하트세이버 추천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하트세이버 수여는 심폐소생술과 심실제세동기를 병행하여 인명을 소생시킨 구급대원과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소생시키고 의사로부터 인명소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일반시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본회 회무홍보 및 지역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요소식을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경북의사회보'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요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재 : 제한없음(시, 수필, 의학 및 건강칼럼 등)

원고매수 : A4용지 2장 내외(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igbma.or.kr)의 회원마당
→ 회보투고란에 게재(상시제출가능)

기타사항 :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의사회보 편집방침에 따라 취지에 맞도록 약간의 원고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0년도 회무감사 수검



지난 2011년 3월 8일(화) 오후 7시, 본회 사무처에서 2010년도 회무 및 경리 등 중요사항에 대한

회무감사 수검이 있었다.

회무감사에는 본회 박경욱·천중욱·서영진 감사와 이석균 회장, 김광만 부회장, 한형원·박일영 기획이사, 장유석 재무이사와 박재영 사무처장이 배석하여 2010년도 의료현안 및 회무 고유사업 전반과 일반회계 세입 490,934,740원 및 세출 413,479,254원과 회관기금 적립금 236,598,091원, 특별회비 적립금 118,896,923원, 의권대책 적립금 109,785,528원, 각종성금 적립금 4,513,798원, 퇴직기금 적립금 19,712,836원의 특별회계 일체에 대해 면밀한 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난 1년동안 현안문제 해결과 의료계의 위상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회무 효율화 사업 및 봉사사업, 회원단합 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집행부와 회무에 협조해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39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지난 4월 7일(목) 오후 2시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제39회 보건의 날 및 제11회 정신건

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나부터 실천하는 건강관리, 가족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로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과 김병목 영덕군수, 본회 이석균 회장과 도내 보건의료단체장 등 주민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기념행사 등이 열렸으며, 건강증진사업 및 정신보건센터 회원 작품 전시·홍보 등으로 시민들에게 건강증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날 기념식에서 본회 김광만(포항) 회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신명준(포항)·이승훈(안동) 회원이 도지사 유공 표창패를 수상했다. 기념식에 앞서 본회 회장을 비롯한 치과의사회장, 간호사회장, 약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회무에 협조키로 했다.



‘마음에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시집 발간 손의원 손장락 원장



안동에서 오랫동안 개원해온 원로회원 손장락 회원(안동, 손의원)이 지난 4월 7일 2005년의 ‘멋쩍은 외출’ 첫번째 시집에 이어 두번째 시집 ‘마음에 새 옷을 갈아입히고’를 발간했다. 시집에는 ‘빠꾸기’, ‘내 마음에 새 옷을 갈아입히고’ 등 91편이 실려있다.

손장락 원장은 머리말에서 ‘2006년부터 째짤이 써

모아 둔 것을 다시 엮어 안전(眼前)을 더럽힐까 합니다.

짚은 부상에 마음도 밝지 않아 마음에 새 옷을 갈아입히고 꾸며 본 것입니다. 읽어 보시고 이것도 글이냐고 웃어 주시면 영광입니다.’고 평소의 성품처럼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손장락 회원은 1997년 「한맥문학」으로 등단하였고,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항의료원 변승열 원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포항의료원 변승열 원장이 지난 4월 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되는 '제 39회 보건의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변승열 원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공공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해 국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특히 변 원장은 △자율적 경영개선 및 특성화 전문병원 전략 강력 추진 △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 추진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균형 발전 등에 공헌한 점이 높이 평가돼 수훈자로 선정됐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에
임현술 교수 임명**



동국대학교는 지난 3월 1일부로 인사를 단행하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에 임현술 교수를 임명했다.

임현술 교수는 동국대학교 의학연구소장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각종 자문위원을 맡아 활발한 연구 및 사회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2003년 대통령 표창, 2010년 근정포장을 수훈하였다. 2010년 8월 EBS 명예에 출연하였다. 한국역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및 생물테라피어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 경상북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및 미래경북 전략위원회 위원, 대한예방의학회 차기 이사장 등 다양한 학술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활발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인정받아 '마르퀴즈 후즈후',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 '미국 인명정보기관' 등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되었다.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장에
손은익 교수 임명**



계명대학교는 지난 3월 1일부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손은익 교수(신경외과)를 임명했다.

손은익 병원장은 1980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경북대 의학박사, 미국 워싱턴대학병원 임상외과, 계명대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동산병원 신경외과장,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

학회장, 계명대 의학유전연구소장, 동산의료원 대외협력처장, 동산의료선교복지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간질학회 대구·경북지회장, 대한간질협회 장미회 위탁진료소장을 맡고 있다.

**대한전립선학회 회장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이경섭 병원장 추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이경섭 병원장(비뇨기과)은 지난 3월5일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전립선학회 총회에서 2년 임기로 대한전립선학회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경섭 원장은 3년 연속 세계인명사전(IBC) 올해의 주목받는 교수, 국제 히포크라테스상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의회 부회장, 비뇨기종양학회 이사 및 감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전립선학회 학술이사 및 부회장, 대한비뇨기과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또한,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여 최우수 논문상을 받는 등 비뇨기과 학회 발전을 위해 연구와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포항 남구보건소장에 박혜경 소장 임명



지난 2월 28일 포항시 남구보건소 신임 소장에 박혜경 소장이 임명됐다. 박혜경 소장은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9년 포항시 남구보건소 의무과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3년부터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으로 재직했으며 최근 포항시 승진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해 남구보건소장에 임명됐으며, 탁월한 업무추진력으로 지난 2005년 제33회 보건의 날 경북도지사 표창 및 지난 2007년에는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본회 박일영 기획이사
경북지방경찰청 감사장 수상**



본회 박일영 기획이사(경산시의사회장)는 지난 4월 20일(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박일영 기획이사는 경북경찰청 인권위원회 사무부처장으로 활동하면서 경찰행정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인권정책 자문을 통해 경찰 인권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으로 이날 수상했다.

제2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수상자에게 듣는다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은 (주)동원약품의 후원으로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회원 중에서 학술상은 회원들의 의학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동일한 논문으로 타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 제외)으로, 봉사상은 의사단체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진료, 교육, 문화, 육영, 체육, 예술, 지역사회 개발, 사회복지사업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펴 지역주민과 관련기관·단체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해 심사후 선정하여 본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여되며, 부상으로는 상패와 부상(각 금1냥)이 주어진다.



우 현 재 조교수
차의과학대학교
구미차병원 이비인후과

학술상 수상소감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학협회지(JAMA)의 이비인후과분야 저널인 'Archives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와 영국호흡기학회 공식 저널인 'Experimental Lung Research' 에 각각 제1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하였고, 미국 이비인후과 Triologic society의 공식저널인 'Laryngoscope' 에 공동 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논문인 'Expression of membrane-bound mucins in human nasal mucosa: different patterns for MUC4 and MUC16' 은, 호흡기점액의 분비를 조절하는 점액유전자 중 아직 그 조절기전이 잘 알려지지 않은 MUC16의 발현양상과 그 조절기전을 연구하여, 기도점액 과분비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서 진행되었던 연구입니다. 임상의로로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전념할 환경이 쉽게 주어지지 않아 고민이 많은 저에게, 이번 학술상은 더욱더 힘을 내어 분발하라는 채찍질인 것 같습니다.

감히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연구업적이 아님에도, 과분한 상을 주신 경상북도의사회와 (주)동원약품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공동연구자로서 연구과정에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영남대 김용대, 김용운 교수님과 고려대 이흥만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창근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안동시은재단

봉사상 수상소감



저보다 젊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제2회 경상북도의 사회 봉사상이란 큰상을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상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 하면서 한편 고마움과 미안함이 앞섭니다. 59년도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어 완전 타향(他鄉) 안동에서 44년을 하루같이 봉사 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반부 33년은 한센인과 인연이 되어 봉사하던 중 그중 24년은 그곳 성좌원에서 원장으로 지내게 되고 후반부 12년은 사회복지법인 안동시은재단에서 이사장으로 현재 지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더욱이 사회복지법인 안동시은재단(안동재활원, 안동요양원, 안동단비원, 인교보호작업장, 예인근로사업장)에 전 재산을 투입(投入)하게 된 것도 한센인의 돌봄의 결과입니다. 한센인은 저에게 한없는 스승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의원을 하면서 그곳 원장으로서 매일 새벽4시에 출근하여 기도회를 하면서 위로하였던것은 저에게는 잊을수 없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한센인을 사랑 합니다.

24년의 성좌원 원장직을 마치고 떠나면서 그분들에게 남긴 말을 끝으로 인사말을 마감할까 합니다.

“술에다 인삼을 담아두면 술이 인삼되고 인삼이 술이 되겠지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과 33년을 같이 있어도 한센인이 못되고 건강하게 나가게 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한센인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미안 신부 보기에다 미안해요. 그는 결국 한센병에 걸려 그들과 함께 했지요.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한센인의 고름을 빨았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여러분의 고름을 빨아 보지 못했네요, 앞으로 고름을 빨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젊어서 소록도에 들어와 백발이 되도록 봉사하고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난 마리안느 수녀와 마가렛 수녀보기에다 부끄러워요. 자꾸 섭섭해 하고 선물 주고 하는거 싫습니다. 내가 여기에 33년 있어도 여러분께 해준것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자리를 빌려서 경북의사회 이석균 회장님과 동원약품 현수환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임 시·군의회사회장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최 경 정 (김천시의사회장)

날이 갈수록 의료계는 잘못된 의료 제도와 낮은 수가, 지원은 없이 오직 규제만 있는 정부 정책으로 많은 회원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 내부에서는 질서와 모함, 고소와 고발 등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부 일선 개업의들의 의협과 시도·의사회에 대한 관심은 싸늘해 지고 실망감으로 의사회 모임 참석률저조, 의협 회비 미납 등 의사회 분열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목과 질서, 무관심은 침체에 빠진 우리의료계를 구해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회원 모두가 스스로 깨달아야겠고, 저 또한 소통과 대화의 부재가 이러한 오해와 대립의 원인임을 알고 작은 힘이나마 지역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하고, 중앙의 모아진 여론을 회원들께 알리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구 본 환 (영주시의사회장)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사회장 구본환입니다. 외우내환의 의료환경속에서 회원여러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료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미국의 심리학자 오바스트리트 교수의 명저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힘’에 있는 한 구절을 소개 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의 욕구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우선 상대방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일으켜 주는 일이다. 그것을 하는 사람은 만인의 지지를 받기에 성공하고 못하는 사람은 한사람의 지지를 받기에 실패 할 것이다.”



임 춘 근 (문경시의사회장)

지금 의료계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의료계 압박, 갈수록 열악해지는 의료환경으로 의사회가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길은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여만 강요하는 의사회가 아니라 동참할 수 있는 의사회, 회원들의 단결과 상호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다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일 영(경산시의사회장)

지난 초봄,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찬바람으로 꽃샘추위를 느꼈지만 이젠 너무나도 따뜻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경산시의사회장이라

는 중책을 맡게 되어 인사 드립니다.

우리 경산시는 대구와 바로 인접해 있어 도내 어느 시군의사회와는 또 다른 지리적 의료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즉 접근이 용이한 상급종합병원들이 많아 환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 일차의료살리기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회원들이 진료외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이 오직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 회원 한명이라도 더 참여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현(칠곡군의사회장)

11만 칠곡군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우리 칠곡군 의사 제위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분위기에서 새로운 회장에 임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의 임기에 의사 회원들의 안녕과 서로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우리 의료계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인 개개인만 내세우는 분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입니다.

우리 칠곡군의사회에서는 회원상호간의 이해과 유대뿐만 아니라 회원과 상위 집행부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점이 없지 않더라도 회원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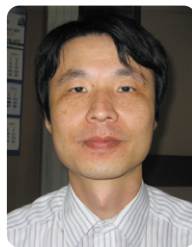


이 상 호(예천군의사회장)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청 신도시의 중심지 예천군의사회장을 맡게 된 이상호입니다.

격변하는 의료 패러다임 변화속에서 다양한 의료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동료간에 교감을 넓히고 융합해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예천군민의 건강수호에 한걸음더 다가가는 예천군의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태 겐(봉화군의사회장)

어려운 시기에 봉화군의사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원장님들이 고사하여 맡게 된 직책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항상 동료의사들을 먼저 챙기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석균 경상북도의회사회장님의 리더십하에 지역내 회원들이 잘 단결하여 어려운 의료환경을 개선시키고 의료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안내

(춘계학술대회, 경북의학제, 친선의 밤)

본회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춘계학술대회,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가 오는 2011년 5월 28일(토) ~ 5월 29일(일)까지 양일간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되오니 회원 및 가족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춘계학술대회

- 학술대회 : 5월 28일(토) 14:00 ~
5월 29일(일) 12:00, 오운홀
-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12평점(토 6평점, 일 6평점)
- 등록비 : 사전 30,000원, 현장 40,000원 / 본회회원
- 사전등록안내
- 춘계학술대회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회원들의 임상 진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제로 준비하였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춘계학술대회 사전등록 신청은 본회 홈페이지 (<http://www.igbma.or.kr>)를 통해 이루어지니 회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4월 27일(수) ~ 5월 18일(수)

● 경북의학제

- 경북의학제 : 5월 29일(일) 13:00, 야외정원
- 경기종목
- 단체 : 족구, 2인3각, 골프파칭, 윗놀이(남성·여성), 탁구, 바둑, OX퀴즈, 테니스대회
- 번외 : 어린이 그림그리기, 시조 및 3행시, 테니스 대회 등
※ 참석자에게는 다양한 경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 친선의 밤 : 5월 28일(토) 19:00, 오운홀
- 참가접수 : 5월 20일(금)까지
※ 숨은 장기자랑을 선보일 회원 및 가족, 단체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학술 프로그램

| 5월 28일 (토) |

구분	연제	연자	소속
	회장인사	이석균	경상북도 의사회장
1강의	마약류 취급자 교육	이정기	경상북도 식의약품안전과 사무관
2강의	대사 증후군의 최신지견	나득영	동국대 내과(순환기) 교수
3강의	골다공증 치료의 최신지견	김정국	경북의전문 내과(내분비) 교수
	Coffee Break		
4강의	시와 와인	신명준	신명준외과의원장
5강의	성격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대화가 어려운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김대현	계명대 가정의학과 교수
6강의	만성 신질환의 관리 및 최신지견	김용림	경북의전문 내과(신장) 교수

| 5월 29일 (일) |

1강의	초고령 국가, 미리가본 2050년	시청각	
2강의	ADHD & Tic disorder	이종훈	대구가톨릭대 정신과 교수
3강의	이명	배창훈	영남대 이비인후과 교수
4강의	대장 항문 질환의 최신지견	최규석	경북의전문 외과 교수
5강의	곰팡이에 의한 피부질환	서무규	동국대 피부과 교수
6강의	혈압과의 전쟁, 이렇게 시작하자	시청각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의사 연수교육 이수 확인 변경안내

의료법 제30조에 의거 의료인은 매년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 오픈 안내

- 연수교육 원스톱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MA 교육센터 오픈
- 주요 제공 서비스
 - ① '의료커뮤니케이션', '노인에서의 질환', '금연치료', '의료윤리' 등 사이버연수강좌 제공
 - ② 연수교육 일정에 대한 안내 및 세부내용 검색 / 관심교육 알람기능
 - ③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및 이수내역서 온라인 발급

■ '연수교육 평점카드'의 '연수교육 이수확인' 변경 안내

- 지금까지 연수교육 실시현장에서 발급하던 '연수교육 평점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KMA홈페이지 로그인후 KMA사이버연수원이나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회원 본인이 직접 로그인 후 평점 등록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방법
 - ① 연수교육에 참석하여 등록대장에 참석확인 서명
 - ② 연수교육기관 14일 이내 교육 이수자 결과보고
 - ③ 해당교육 이수자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 로그인(ID 및 비밀번호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와 동일)
 - ④ [마이페이지] → [이수증 및 이수내역발급] 란에서 확인

(가) 연수교육의 목적

- ① 최신의학지식 및 의료기술 습득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구
- ② 평생교육을 통해 회원 자질 유지 및 향상

(나) 교육회기 및 이수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다) 이수평점

- ① 매년 12평점 이상 이수
- ② 개원의 및 인턴수련병원 이하 의료기관 봉직의는 매년 4평점 이상을 해당 시·도사회가 개최하는 연수교육에 참석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의과대학 및 레지던트수련병원 이상 의료기관 봉직의는 매년 4평점 이상을 해당 학회 또는 해당 시·도사회에서 개최하는 연수교육에 참석하여 이수하여야 함

(라) 연수교육의 이수방법

- ① 대한의사협회에서 승인을 받은 연수교육에 참석(KMA 교육센터 '연수교육'에 교육일정 상시 안내)

- ② 사이버연수교육 수강(년 5평점까지 인정) - KMA 교육센터 (edu.kma.org) 로그인 후 '사이버연수교육' 수강 (e-test 60점 이상 인정)
- ③ 대한의사협회지 자율학습 참여(년 3평점까지 인정)
 - 우편, FAX를 통해 참여 : 1회 1평점(60점 이상 인정)
- ④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학술지, 학회지 등에 논문게재(연말에 소속기관을 통해 보고)
- ⑤ 외국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우 대한의사협회 의학교육팀으로 참석 증명서와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연수교육 평점으로 환산 인정

(마) 개인 연수교육 이수내역 및 평점 확인방법

- KMA 교육센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수증 및 이수내역발급]란에서 확인



(바) 연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대상자

- ① 연수교육 대상자 :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
- ②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수교육을 면제함
 - ㉠ 의과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자
 - ㉡ 군복무 중인 자
 - ㉢ 전공의
 - ㉣ 대학원 재학생(석사·박사과정, 단, 의학과만 해당)
 - ㉤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 해외체류, 휴·폐업 등으로 해당년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 질병 기타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③ 면제신청서(KMA 교육센터에서 다운로드) 및 증빙서류를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대한의사협회 의학교육팀에 제출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사) 미이수자 행정처분 [의료법 제68조 및 제92조]

- ① 1차 미이수시 : 경고(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70만원의 과태료 처분)
- ②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 자격정지 7일

Notice 공지사항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문 및 각종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 안내합니다.

모든 공문 및 안내사항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igbma.or.kr>)의 의사회소식 → 온라인 공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가입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외용제 등 1회 투약량 기재방법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외용제 등의 1회 투약량 기재 착오로 일부 잘못 청구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기재방법 안내
- 외용제 등 약제상한차액 기재방법

구 분	외 용 제	주 사 제
1회 투약량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책정되는 단위"를 기준으로 기재	1회 실투여량 [※]
1일 투여횟수	"1"기재	1일 실투여횟수
총 투여일수	"1"기재	실투여일수

- 1) 분할 투여한 인슐린제제
- 2) 소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둘째자리까지 기재

법령 개정에 따른 표본감시기관 지정 협조요청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표본감시 감염병의 종류 및 표본감시기관 지정기준이 변경된 바, 표본감시체계 운영을 위해 각 시군구 보건소장으로부터 표본감시에 참여할 의료기관 명단을 추천받고 있음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이 표본감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아울러 지정 표본감시기관용 진단 및 신고기준은 빠른 시일 내에 책자로 배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주간건강과 질병'란에 수록되어 있음

군의원 민간병원 불법진료 금지 요청

- 국군 의무사령부에서는 '군의원 민간병원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 1) 군의원 민간병원 불법 진료의 법적 문제점 : <군인복무규율 제6조 영리행위 및 검직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의료사고 발생 시 법의 보호 곤란
- 2) 군의원 개인의 불이익 : 불법 진료 군의관에 대해 군법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

- 3) 군에 대한 신뢰도 저하 : 현재 안보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효과 발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권장 안내

- 2010년 4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업종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
 - 미 발행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및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미발급 금액의 20%, 건당 3백만원 · 연간 1,500만원 한도) 도입 시행
 -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 ※ 의료기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발급의무 대상자

프로포폴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에 따른 협조

- 식약청에서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2011. 2. 1부) 하기로 함에 따라 프로포폴의 취급·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안내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는 별도의 허가없이 마약류 저장시설을 갖추고 프로포폴을 취급할 수 있으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취급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프로포폴의 제조·수입·판매업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건강보험증 표기 개선 시행일 변경

- 건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증의 주민등록번호 표시 방법 개선에 대하여 시행일이 변경되어 안내
- 업무개선 내용(종전과 동일)
 - 1) 건강보험증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표시
 - 2) 공단 홈페이지 수진자 조회기능 추가 보완 ⇒ 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앞자리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시행일 : 2011. 3. 2

2011년도 적정성평가계획

- 심사평가원은 201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하였으며, 대장암 등 암질환 진료의 평가가 신설되었고, 당뇨병 평가가 추진될 예정이며, 유방암과 유소아중이염항생제사용에 대한 예비평가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 2011년 평가항목
 - 신규평가 : 대장암, 위암, 간암, 당뇨병
 - 계속평가 : 약제급여, 요양병원, 수술의 예방적항생제사용,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혈액투석, 관상동맥우회로술, 고혈압, 진료량지표, 의료급여정신과
 - 예비평가 : 유방암, 유소아중이염항생제사용
- 평가지표 보완

제왕절개분만은 초산제왕절개분만을 지표 추가, 급성기뇌졸중,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은 사망률과 감염률 등 진료결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지표보완
- 가감지급 사업 : 종합병원까지 대상기관 확대(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소화기내시경 소독 지침 홍보

- 최근 소화기내시경 검사의 증가와 함께 내시경 검사의 안전과 관련하여 적정한 내시경 소독에 대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내시경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개별검사마다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 일부 병원에서 부적절한 소독이 행해지고 있으며 내시경 검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내시경 소독지침을 제정하여 안내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1호, 2010. 8. 13. 제정]을 제정 공표하여 적절한 기구소독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음을 전달

해빙기 수인성감염병 및 집단식중독 예방관리 협조

- 집단설사 및 수인성 발생 진단시 보건기관에 신속한 신고 체계 유지. 특히, 구제역 발생지역(매물지) 주민의 감염병 진단시 신속한 신고 등
- 내원환자에 대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홍보
-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감시체계 신고 활성화(질환별 신고시기 준수)
 - 1) 인플루엔자 : 일일보고 또는 주1회 보고
 - 2) 기타질환 : 진단시 웹보고

타지역의 불법 의료광고 제보 요청

- 최근 들어 의학에 대한 타 지역의 영역 침해 문제라든가, 법의 한계를 넘는 과장되고 환자 유인성 내용의 의료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하고 있어 타 지역으로부터의 침해성 의료광고나 불법적인 의료광고사례가 있으면 적극 제보하여 줄것을 안내
- 불법 의료광고 제보
 -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홈페이지 : www.admedical.org 열린마당 → 신고/제보
 - 2)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메일 : adkma2@kma.org
 - 3) 의료광고심의위원회 FAX : (02) 794-835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관련 안내

- 2011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금액 및 적용기준
- ※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한 1일 사용한도 예외 적용 방법(카드 결제 처리방법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분	개정전	개정 후	시행일	적용대상자
지원액 (임신부 1인)	30만원	40만원	2011. 4. 1	2011. 4. 1 신청자부터
1일 사용 가능한 이용 범위	4만원	6만원	2011. 4. 1	2011. 4. 1 현재 이용권 잔액이 남아있는 자
예외	-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의 경우, 1일 사용가능한 이용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음	2011. 7. 1	2011. 7. 1 현재 이용권 잔액이 남아있는 자

메탄올 함유된 소독용 의약외품 사용중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받은 성분 및 분량과 다르게 공업용 메탄올을 사용하여 소독용 의약외품 3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업체를 적발하였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중 일부를 검사한 결과, 인체에 부작용 등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되어 있었음을 안내

업체명	제 품 명	규 격
라파제약(주)	라파소독용에탄올	50mL, 250mL, 1L, 4L, 18L
	클린스왑(에탄올)	1매, 100매, 200매, 400매, 160g
	아쿠아실버젤손소독제	150ml, 532ml, 1L

장애등록제도 변경 안내

- 보건복지부는 의사 1인이 장애인단과 함께 장애등급 판정하던 것을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을 개선(2011. 4. 1. 시행)
- 장애등급심사 대상자 확대
 - 신규 등록 및 재판정 대상자, 장애등급조정신청하는 장애인은 모두 장애등급심사완료 후 장애인 등록하도록 변경(2011. 4. 1 부터 적용)
- 장애인단서 서식 변경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지 3호 서식“장애인단서”의 장애등급 기재란 삭제(2011. 2. 1 공포 단, 변경된 장애인단서 서식은 2011. 4. 1부터 적용)
 - 병·의원에서는 기존과 달리 장애등급을 기재하지 않음
- 뇌병변장애판정기준 개정
 - 수정바델지수 점수 상향조정 및 팔, 다리 부분 마비, 관절 구축 규정추가
 - ※ 수정바델지수의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장애상태 명기
 - ※ 뇌병변 장애평가시 수정바델지수 활용지침에 따라 평가
- 장애인등록절차 흐름도



■ 주요변경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장애등급 심사절차	· 기존 : 일선 병·의원의 의사 1인에 의한 장애인단 · 판정만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 변경 : 일선 병·의원의 의사는 장애인단만 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일선 병·의원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를 토대로 장애등급심사 후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개선장애등급 심사기준	·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는 판정기준 마련 ·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보완
완화이의신청	·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절차 등 안내 의무화 ·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내실화 편의제공 확대	·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방문상담, 심사서류 직접확보) ·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달기 캠페인

매월 2만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반딧불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적십자를 통해 전하세요.

■ 캠페인 내용

- 경북적십자사와 각 사업체별 후원협약 후원약정 (월 2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약정)
- 희망나눔 명패 및 증서 전달 / 적십자 활동시 캠페인 참여 사업체 홍보

■ 캠페인 참여 사업체에는

- 활동안내 정기 홍보물 발송 / 적십자 봉사 활동시 참여기회 제공

■ 세제혜택

-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코드10)으로 100% 소득 공제 (법인인 소득 금액 5% 이내 손금산입)

희망나눔 후원금으로...

■ 긴급생계구호지원

-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주·부식을 지원합니다.

■ 조손가정 지원활동

- 조부모와 함께 사는 어린이들을 위해 영양·교육·정서발달 지원 활동을 합니다.

■ 재난 이재민 구호활동

-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활동을 펼칩니다.

■ 무료급식 및 밑반찬 배달

-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밑반찬을 제공합니다.

■ 문의 : 대한적십자가 경상북도지사

- 전화 : 053) 255-6963, 팩스 : 053) 254-3254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정총서 신년도 사업계획 확정



포항시의사회(회장 황석순)는 지난 2월 25일(금) 오후 6시 30분 W컨벤션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황석순 회장을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 이원기 의협 부의장 등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황석순 회장은 인사를 통해 “지난한해는 원격의료법안부터 시작해서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와 의료계 내부의 갈등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으나 회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의사회가 더욱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어 이석균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시상에는 유공회원으로 양숙경, 하덕기 회원이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대외시상과 의료기관 모범직원 표창이 있었다.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감사보고 및 회무 및 회계결산보고는 이의없이 박수로써 받아들였으며, 신년도 사업계획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계몽 등 12개 사업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일반회계 예산 159,060,630원을

확정하였으며, 병의원 주5일 근무제 건의 등 4개 의안을 경상북도지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후쿠야마시의사회 교류회



지난 1월 8일(토)부터 10일(월)까지 포항시 및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일본 후쿠야마시의사회와 교류회를 가지고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주시의사회

2011년도 정기총회 개최



경주시의사회(회장 이봉구)는 지난 2월 22일(화) 오후 7시 경주시의사회관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이봉구 회장을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 변영우 고문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이봉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동안 의사회 회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사회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석균 회장의 축사와 더불어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던 후 변영우 고문의 축사가 있었다. 의사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대외인사에 대한 감사장(경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안재헌)을 전달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경주시의사회 2010년도 감사보고와 회무보고, 결산은 이의없이 받아들였으며, 금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고 기타토의 및 건의사항에서 이봉구 회장의 주재로 의약분업 재검토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했다.

동국의대 해오름식 참석



3월 11일(금) 오후 6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종합강의실에서 2011년도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해오름식이 있었다. 이날 이봉구 회장이 참석해 축사와 더불어 의학과와 의예과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김천시의사회

신임 최계정 회장 선출



김천시의사회(회장 이경엽)는 지난 2월 23일(수) 오후 7시 옥류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최계정 회원을 선출했다. 신임 최계정 회장(동산연합의원)은 1964년생으로 계명대대를 졸업했으며, 김천시의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이번에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안동시의사회

정총서 의사회 회칙개정

안동시의사회(회장 김광인)는 지난 1월 13일(목) 오후 7시 안동성소병원 8층 강당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칙개정과 더불어 신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2010년도 회무보고와 결산 53,378,369원을 이익없이 받아들이고, 2011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2,127,840원이 적은 51,250,529원을 편성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회 활동과 회무의 연속성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요건을 안동시에 개원 및 근무하는 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자로 개정하고 집행부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기로 의결하는 등 2011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제1차 이사회 및 신년교례회

지난 2월 17일(목) 저녁 7시 청록한정



식에서 안동시의사회 제1차 이사회 및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날 손장락·정창근·최종두·최유근·이한양 원로회원을 비롯한 임원, 각 반장 등 24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으며, 윗놀이로 회원간의 단합을 도모했다.

구미시의사회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확정

구미시의사회(회장 류성훈)는 지난 2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신타페레스토랑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류성훈 회장을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 등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류성훈 회장의 인사와 이석균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감사보고 및 회무 및 회계결산보고는 이익없이 박수로써 받아들였으며, 신년도 사업계획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계몽 등 9개 사업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일반회계 예산 86,409,630원을 확정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경북 최초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시행

금년 1월부터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을 시행기로 했다. 이 사업은 구미시에서 총 사업비 10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68,200명)은 집근처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무료접종 할 수 있다.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전국적인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소비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25일(화) 오후 1시 구미시가 주체한 축산물 소비촉진행사에 구미시의사회가 참석해 '현재 유통되는 한우·돼지고기는 안전하다'는 슬로건으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으며 인체에 무해함을 강조하며 시식회와 판매행사에 참석했다.

영주시의사회

2011년도 정기총회 개최



영주시의사회(회장 구분환)는 지난 2월 9일(수) 오후 7시 우미식당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는 구본환 회장을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본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기동안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였으며, 이석균 회장은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료계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는 인사와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2011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영천시 의사회

의사회를 중심으로 화합 다짐



영천시의회(회장 이동길)는 지난 2월 18일(금) 오후 7시 고공한정식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이동길 회장을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과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이동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사회 회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사회를 중심으로 더욱 화합하는 의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본회 이석균 회장의 축사와 더불어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은 후 정만진 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영천시의회 2010년도 회무보고와 결산은 이의없이 받아들였으며, 금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상주시 의사회

2011년도 정기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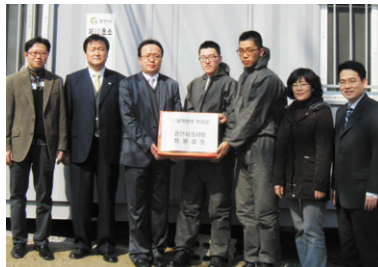


상주시의회(회장 이원두)는 지난 1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청기와식당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상주시의회 이원두 회장을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원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에도 의사회 회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고 하였으며, 이석균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의료계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에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어 상주시의회 주요회무보고와 일반회계 결산은 이의없이 받아들였으며, 현 이원두 회장을 연임키로 하는 등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경산시의사회

구제역방역초소 위문



경산시의사회(회장 박일영)는 지난 2월 24일(목) 경산지역 37개소 구제역방역초소에 쿨, 컵라면과 드링크를 각각 1박스씩 전달하였으며 방역초소 근무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정기이사회 및 보건소와의 간담회 개최

지난 2월 22일(화) 금조횃집에서 정기이사회 및 경산시보건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종영 회원, 경산드림스타트에 영양제 지원



김종영(경산, 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회원은 지난 1월 27일(목)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발육부진 등 영양상태 개선에 써 달라며 비타민D 50병(150만원 상당)을 경산시 드림스타트센터에 기탁했으며, 관내 아동 50명에게 전달했다.

김종영 회원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소홀하기 쉬운 아동들의 비타민D 결핍 문제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양제를 지원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경산시의사회 친선행사

화창한 봄 날씨와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경산시의사회 제2회 친선골프대회가 지난 4월 10일(일) 대구 팔공CC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경산시의사회 박일영 회장과 회원, 군산시의사회 김성배 회장과 회원 등 양 지역의사회 28명의 회



원과 본회 이석균 회장, 대의원회 정만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박일영 경산회장의 환영사와 김성배 군산회장의 답사, 기념사진 촬영, 골프대회, 친선등반대회, 시상의 순으로 진행됐다.

친선 골프대회는 오전 11시 15분부터 양측 회장님의 시타로 시작되었으며, 등반대회는 팔공산 케이블카를 타고 동봉을 거쳐 동화사로 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이어 친선행사 시간에는 본회 이석균 회장과 대의원회 정만진 의장의 격려사와 더불어 선물교환, 건배제로 진행되었으며, 시상식에서 골프대회 우승은 군산시의사회 위대한 회원(군산의료원 응급의학과)이 차지하는 등 제2회 군산시-경산시의사회 친선행사는 성황리에 마치고 내년에 군산에서 다시 만날것을 기약했다.

의성군 의사회

2011년도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성주 가든에서 의성군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성군의사회 이재흠 회장을 비롯한 본회 이석균 회장, 정능수 대의원회 부의장 등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가운데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칠곡군의사회

신임 이영헌 회장 선출



칠곡군의사회(회장 전용성)의사회는 지난 2월 15일(화) 오후 7시 독도회식당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이영헌 회원을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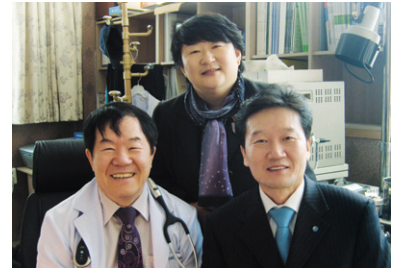
이날 정기총회는 전용성 회장과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최형석 원로회원 등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 임기동안 의사회 회무를 추진함에 있어 회원님의 많은 협조속에 임기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석균 회장은 "칠곡군의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쓰신 전용성 회장님과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본회 회무에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하였으며, 이어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2010년도 회무보고와 결산은 이의없이 받아들였으며, 회장선출에서 신임회장으로 이영헌 회원(칠곡가톨릭피부과의원, 1965생)을 박수로써 추대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울진군의사회

심평원대구지원장 방문

지난 3월 24일(목) 심사평가원대구지원 김성규 지원장과 김희숙 심사부장이 DUR 협조와 격려차 울진군의사회를 방문하였다.



2011년도 정기총회 개최

지난 3월 29일(화) 울진군의사회의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경북의사회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과 울진의료원 백용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의가 알아야 할 노무관리"란 주제로 PMG 노무법인의 김희억 노무사의 강의와 더불어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의료관광을 위한 힐링(healing) 센터 건립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2월 15일(화) 오전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원식 정무부지사와 최양식 경주시장, 손동진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 이경섭 동국대경주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양·한방 의료관광을 위한 힐링(healing)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힐링센터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내 건축면적 3305㎡(5층 건물) 규모로 건립된다.

여기에는 MRI 등 영상의학검사, 진단 의학검사, 경락, 침, 부항 등 한방검사실과 치료실 등을 갖춰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포항성모병원

만성콩팥병 환우를 위한 영양상담 및 식품 전시회



지난 3월 17일 본관 1층 외래로비에서 세계콩팥의 날을 맞이하여 '당신의 콩팥은 건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내원객과 입원환우를 위한 영양상담 및 식품 전시회를 실시했다.

이날 전시회는 만성 콩팥병의 조기 증상 안내와 △혈압이 상승 △자다가 일어나 소변을 자주 봄 △단백뇨, 혈뇨 같은 소변검사의 이상 △입맛이 없고 쉽게 피로 △전신이 가려움 △는 주위나 손발이 부어오름, 콩팥의 기능소개, 단백질, 칼륨, 인, 나트륨 등 각 영양소의 기능과 섭취 방법, 저염식단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영양사와의 1:1 면담을 가지는 등 내원객과 입원환우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검은 대륙 죽음의 땅 청년들에게 사랑의 인술 전해

검은 대륙, 아프리카 잠비아 출신의 코스마스 반다(20), 빅터 칠레쉬(22)씨는 지난 2월 24일 포항성모병원의 종합검



진센터를 찾았다.

포항성모병원은 포항지역 유일의 가톨릭의료기관으로써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부초음파, 체성분검사, 혈액검사, X-ray촬영, 위 내시경 등 건강 전반 사항을 꼼꼼히 검사하여 당일 결과 확인과 전문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종합건강검진 One-Stop 서비스를 전액 지원했다.

필리핀에 희망의 메시지 전하



지난 2월 24일(목)부터 나흘간 필리핀에 성모의료봉사단을 파견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왔다.

성모의료봉사단은 정형외과 안길영 주임과장을 단장으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4명과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지민 650여명에게 사랑의 인술로 희망의 메시지를 선물했다.

안길영 단장은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이렇다 할 하수시설이 없어 쓰레기와 배설물이 길가에 흘러다니는 등 불결한 생활환경으로 각종질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며 "현지인들 대부분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로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지만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어른·아이 구분없이 영양상태 또한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부병환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심성의껏 최선의 진료를 실시하여 희망을 전하고 왔다."고 말했다.

손경옥 병원장, 남여고용평등 유공 훈장 수훈



포항성모병원 손경옥 병원장이 지난 4월 1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남여고용평등 기념식에서 남여고용평등문화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수훈했다. 손 병원장은 선진화된 직장보육시설 운영, 여성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결혼·육아로 일시적으로 퇴직한 여직원의 재고용, 지역의 능력 있는 여성인력 채용확대 등을 통해 남여고용평등실현에 이바지해 왔다.

안동병원

구제역 후유증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치료



안동병원(이사장 강보영)과 안동시정신보건센터가 구제역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건강 치료에 나섰다.

지난 1월 26일(수) 안동시 서후면 태장

리 마을회관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봉사단이 지역 주민들과 구제역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정신건강 테스트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의료봉사는 구제역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후면을 시작으로 안동시 14개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신과적 질환으로 불안, 불면 등의 과민반응, 충격의 재경험, 감정회피, 마비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안동성소병원

최신 의료시설 신관 개원



안동성소병원이 고급 호텔 수준의 시설을 갖춘 신관을 짓고 지난 2월 22일(화) 은파홀에서 개원 기념식을 열었다. 지난 2009년 5월 착공해 22개월간의 공정을 거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3천820평 규모로 지어진 이 병원 신관은 신도청시대를 맞아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관 준공으로 성소병원은 기존 병실을 포함해 800여 병상을 확보, 대형병원으로 면모를 갖췄으며 이에 걸맞은 전자시스템과 고속 승강기, 진료대기 공간 등 편의시설도 구비했다. 특히 4층에는 황토와 규조토, 참숯, 산호석 등 건강자재로만 인테리어를 마감해

병실 수준과 품격을 한 차원 높였고 출산과 산후관리 모자보건센터를 특별 설치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환자에게 온정의 손길



7년전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온 캄보디아인 우잔타씨(여,53세)는 최근 숨을 쉴 수 없는 힘든 상황으로 병원에 입원해 확장성 심근병을 치료받았다. 하지만 300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또 다른 걱정으로 다가와 이에 우잔타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구미제일라이온스클럽과 신비한 약초세상 대구경북회, 병원에서도 치료비 일부를 지원했으며, 거동이 좋아지는 대로 퇴원하여 캄보디아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계획이다.

응급심장질환 진료체계 구축



최근 심장내과 의료진을 보강하고 응급심장질환 진료체계 구축,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심장질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24시간 응급심장질환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심장

내과 전문의 3명이 비상근무 체제로 진료하며 혈관조영촬영기로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하여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관상동맥 풍선확장술, 스텐트삽입술 등을 야간에도 시행하고 있다.

심리재활 프로그램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근로복지공단이 2010년 심리재활프로그램(희망키움)을 전국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한 가운데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희망키움 심리재활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요양기간 1년 미만인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정신불안 해소 및 심리안정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적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병원은 산재근로자의 심리안정과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조기에 직업 및 사회로 복귀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받았으며 '2010년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구미차병원

환자위한 깜짝 봉사활동



지난 2월 25일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을 찾은 구미 "바로코음악원" 원생 20여명과 오즈매직 미술단원

3명은 병원 1층 로비에서 입원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간병인을 위하여 깜짝 봉사활동을 열어 환자에게 즐거움을 가득 선사했다.

구미차병원에서 열린 이번 깜짝 봉사 활동은 6세 아동부터 중학교 2년생으로 구성된 미니 콘서트로, 봄 방학을 이용해 병마와 싸우는 환자에게 쾌유에 힘을 보태고, 적극적인 병상 생활에 봄기운을 전하는 등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추억의 시간을 가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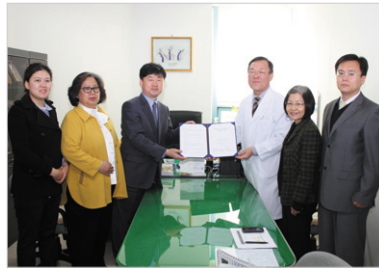
지역민과 함께, 나눔의 기쁨 실천

생활이 곤란한 지역민에게 다소나마 보탬을 주기 위한 취지로 구미차병원 교직원 500여명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을 남유진 구미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지역민과 함께”한다는 구미차병원의 문화는 매년 연말연시와 연중에 불우 이웃돕기와 무료건강검진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왔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지역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 위하여, 2월에 쌀 20kg짜리 180포대와 라면 111Box를 형곡주민센터 및 복지 시설에 전달, 7월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열어 이익금 전액을 구미시 진평동 거주 황모씨외 5명에게 전달, 11월에 교직원들이 직접 담은 김장 1,000Kg을 차세대계층 50세대에 전달하는 등 사업을 예년에 비해 확장하여 4회에 거쳐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물품이 전달됐다.

이주민들 의료지원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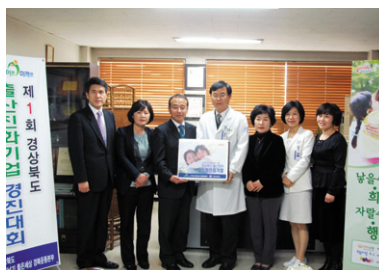
지난 3월 23일(수) (사)경북이주민센터와 의료사업에 관한 상호협력을 맺었다. 이를 통해 구미차병원은 경북이주민센터 북한 이탈주민 의료사업의 일환으로 본원에서 진료 받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본인 진료비 중 비급여부분



에 입원, 외래 비급여 20% 감액 진료 지원을 약속하며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 협약식에 참석한 김영달 대표는 “그간 의료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역에서 가장 크고 신뢰도가 높은 병원과 협약이 체결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조수호 병원장은 “늘 지역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며 한층 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환자 중심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제일병원

경상북도 출산친화기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지난 3월 10일(목)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북운동본부와 경상북도가 개최한 ‘제1회 경상북도 출산친화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문경제일병원은 문경시에서 가임여성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로 2010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오고 있고, 임산부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출근 직원 자녀들을 위해 등교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임산부와의 대모결연사업과 다

자녀 가정의 중고생에 대해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보건소와 협력해 임산부 건강관리사업과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적으로 ‘제1회 경상북도 출산친화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상금300만원과 표창패를 받았다.

경산삼성병원

경산삼성병원 문 열었다

근원의료재단 경산삼성병원(이사장 백승찬)은 지난 3월 1일(화) 오전 11시 병원 로비에서 분회 김광만 부회장, 최병국 경산시장, 도·시의원, 의료계 관계자, 시민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서 ‘소중한 당신, 경산삼성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는 슬로건을 내건 경산삼성병원은 “모든 환자를 가족처럼 모시고 환자의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산삼성병원은 대지 1만154㎡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 15개 진료과목 202병상으로 오픈해 651병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피부부노과, 신장과, 안과, 정신과, 치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등이다.

드림스타트 가정에 쌀 지원

지난 3월 23일(수) 개원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 20kg들이 53포, 10kg 12포(250만원 상당)를 드림스타트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경산시에 기탁했다. 또한 경산시 드림스타트센터 외에도 지역아동센터, 미혼모보호시설, 중증장애 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등에 모두 600포의 쌀을 전달했다.



문.경.시.의사회

문경시는

청운의 꿈을 안고 과거보리 한양길에 오르내린 수 많은 선비들의 애환이 어린 새재가 있는 문경시는 1995년 행정구역 개편때 짐촌시와 문경군이 통합되면서 행정명이 문경시로 바뀌었고, 2개의 읍, 7개의 면, 5개의 동으로 구성된 인구 8만인 도농통합형도시다.

행정구역상 우리나라의 동남부, 경상북도의 서북단 내륙에 자리잡은 중산간지역으로 동쪽으로는 예천군과 남쪽으로는 상주시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괴산군, 북쪽으로는 충청북도 제천시·충주시·단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시민복지, 앞서가는 경영행정, 다시 찾는 문화관광을 바탕으로 문경관광 웰빙의 고장을 위해 노력중인 도시다.

문경시의사회 소개

1) 연혁 및 의료기관 현황

1945년 해방 당시에는 한국인 의사 3명이 개업하고 있었다.

점촌의원의 장원극 선생님, 중앙의원의 신찬균 선생님, 제중의원의 이종연 선생님인 데 세 분 모두 검정의 출신이었다.

그후 1950년 12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신 서정후 선생님께서 새재의원을 개원하셨고 이듬해 평양의전 출신의 한남규 선생님께서 태백의원을, 유재훈 선생님께서 서울의원을, 조철균 선생님께서 평안의원을 각각 개원하셨다.



문경시 의사회 역대회장

- 초대 신찬균(중앙의원)
- 2대 한남규(태백의원)
- 3대 유재훈(서울의원)
- 4대 조철균(평안의원)
- 5대 조윤식(조외과의원)
- 6대 김성환(금성의원)
- 7대 조철균(평안의원)
- 8대 유재훈(서울의원)
- 9대 전경홍(동산가정의학과의원)
- 10대 남영근(파티마내과의원)
- 11대 김수근(성모정형외과의원)
- 12대 남영근(파티마내과의원)
- 13대 김성연(김성연산부인과의원)
- 14대 이웅렬
(이웅렬이비인후과의원)
- 15대 유성호(평화산부인과의원)
- 16대 정명근(정명근외과의원)
- 17대 박승구
(박승구소아청소년과의원)
- 18대 강찬규(강찬규내과의원)
- 19대 김규태(김규태신경정신과의원)
- 20대 박봉기(박내과의원)
- 21대 임춘근(임춘근산부인과의원)

임원명단

회장 임춘근, 부회장 민병국,
총무이사 윤종석, 감사 박대홍 · 안진희,
법제이사 이준혁, 섭외이사 박대홍

유재훈 선생님은 문경군보건소장(1951. 6 ~ 1988. 8)을 역임하였으며, 서울의 대 해부학교실에서 봉직한 경험으로 지역사회 광산사고 사망자들의 사체검안, 사체해부 등을 담당했고 개원가 동료들에게 법의학 분야의 멘토 역할을 했으며, 사이클 · 테니스 · 골프 등도 지역사회에 보급하셨다.

과거 석탄사업이 호황이던 70년대를 지나 80년대 초반까지 조외과의원(조윤식 선생님), 대동의원(박영진 선생님), 박외과의원(박우진 선생님), 금성의원(김성환 선생님), 동산의원(전경홍 선생님), 이외과의원(이창수 선생님), 정산부인과의원(정한중 선생님), 정학기정형외과의원(정학기 선생님), 덕수의원(최강환 선생님) 등이 문경 지역의 보건의료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1981년 6월 지역 유일한 종합병원 문경병원(현 문경제일병원)이 개원했고 이후 1986년까지 회원이 16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종합병원(문경제일병원) 1개, 병원 3개(문경제일노인요양병원, 시립 문경요양병원, 중앙병원), 개인의원 43개가 문경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2) 의사회 활동 및 주요사업

회원간의 단합과 소통을 중시하는 문경시 의사회는 튼튼한 조직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가지며 최근의 의료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회원님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춘계 · 추계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골프를 하지않는 회원님들을 위해 골프대회시 산행도 같이 할 예정이다.

의약분업에 따른 문제점과 시정사항을 조율하고 상호협조를 도모하기위해 의약인(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모임을 분기별로 가지며 집행부가 바뀔때마다 시장님을 모시고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가져 업무협조 및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전염병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2009년 가을 신종플루 대유행시 문경시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이를 잘 극복한바 있다. 지역사업으로 매년 문경대학 간호과에 장학금 전달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각종 체육대회, 시각장애인협회, 노인건강축제에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리 : 회장 임춘근)

문경시의사회는 튼튼한 조직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매일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가지며 최근의 의료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문경의 관광명소

1. 추천명소

1) 문경새재도립공원

예로부터 문경새재는 영남의 옛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새재를 넘어가며 술한 전설을 남겼고 술한 애환과 역사적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2) 문경도자기, 문경유교문화관, 진남교반 등...

2. 산

우리나라 100대 명산중 4곳인 주흘산, 대야산, 회양산, 황장산이 이곳 문경에 있다. 주흘산은 조선조 문경현의 진산(鎭山)이며 해발 1,106m로 웅장하고 장엄한 산세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골짜기마다 역사의 향기가 남아있다.



제관문



주흘산



용추계곡

3. 계곡

대야산 용추계곡, 백운대계곡, 선유동계곡, 쌍룡계곡, 운달계곡...

4. 사찰

봉암사, 김룡사, 대승사, 해국사, 심원사, 원적사, 운암사..

5. 체험/학습/관람시설

문경석탄박물관, 가은오픈세트장, 문경온천, 문경활공랜드, 운강 이강년 기념관, 문경관광, 사격장, 불정자연휴양림, 문경자연생태박물관 등



문경석탄박물관

6. 문경 농·특산물

1) 사과

일교차가 큰 소백산맥의 석회암 토질에서 재배된 문경사과는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월등히 높으며 저장성이 뛰어난.

2) 오미자

백두대간 청정환경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해 맛과 향이 독특함.



3) 문경 약돌한우

사료에 거정석을 첨가하여 한우체내에 불필요한 지방의 축적을 막아 육질이 연하고 맛이 월등히 좋음.

4) 문경 약돌돼지

사료에 거정석을 첨가하여 돼지 특유의 냄새가 없으며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맛이 좋음.

5) 호산춘

황희정승이 즐겨 드시던 500여년 역사의 전통민속주로 빛깔, 맛, 향이 독특함.



예.천.군.의.사.회

예천군 소개

1) 자연환경

소백산맥이 충청북도와의 경계를 이루어 군의 북부는 해발 1,000m 이상의 산지가 연속되어있고, 동쪽과 서쪽의 군계에도 높은 산이 많으며 남쪽으로 향하면 서 높이가 점차 낮아져 구릉지로 변한다. 서남쪽에는 경사가 완만하여 낙동강 및 내성천 유역에 일부 평야를 이루고 있어 기름지고 농경에 알맞은 지역이다. 대표적인 산으로는 동쪽에 주마산, 학가산, 서쪽에 국사봉, 매봉, 북쪽에 묘적봉, 가재봉 등이 있다. 연평균 기온은 12.5℃, 강수량 1,116mm이다.

2) 역 사

고대 - 예천은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최북단인 수주현으로 있었고 통일신라 제 35대 경덕왕 16년에는 영안(풍산), 안인, 가유(산양), 은정(상하리)의 4현을 영속시켜 예천군이 되었다. 고려 - 구위 예천군은 보주로, 양양, 청하로 불렸고 1204년(신종7) 남도초토 병마사 최광의가 경주의 신라 부흥군과 이 곳에서 싸워 승리한 것으로 인하여 지주 보사로 다시 승격되었다. 축산현은 995(성종14) 용주로 개편되어 자사가 임명되었으나 1005년(목종8) 폐지되었고, 1012년(현종8) 용궁군으로 고쳐져 상주목에 속하였다. 조선 - 고려 후기의 읍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주는 1413년(태종13) 보천군으로 고쳐졌다가 1416년(태종16) 다시 예천군으로 되었다. 용궁현은 1413년 감무를 현감으로 고쳤다. 근대 - 1895년 예천군과 용궁

예천군 의사회 역대 회장

- 초대 권성진(예천권병원)
- 2대 및 5대 강갑성(인성의원)
- 3대 윤성준(윤의원)
- 4대 백승기(성누가의원)
- 6대 차광국(제일의원)
- 7대 장필식(경복의원)
- 8대 노영철(예천중앙의원)
- 9대 이상호(이상호정형외과의원)

경상북도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은 안동시, 서쪽은 문경시, 남쪽은 상주시와 의성군, 북쪽은 영주시와 충청북도 단양군에 접하고 있다. 면적은 660.78km² 이며 인구는 48,444명(2008년 12월 31일 기준)이다. 1읍 11면 265리가 있으며, 군청 소재지는 예천읍 노상리이다.

군으로 편제되어 안동부에 속하였고, 1896년 경상도에 속하였다. 1906년 동로면과 화장면을 문경군에, 다인면을 비안군에 편입했고, 1914년 용궁군이 예천군에 통합되는 동시에 안동군에서 감천면을, 풍기군에서 상리면과 하리면을 편입하였다. 1937년 예천면 노상동 등 16개 동이 편입되고 예천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지역특산물

예천군의 명품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한 예천쌀(용골진미, 맥반석쌀, 용궁진상미)이 있다. 예천읍은 동충하초 및 누에가루, 양잠, 쪽파 등이 많이 생산되며 용문면은 금당꿀, 사과, 건고추, 마늘이 유명하다. 상리면, 하리면에서는 인삼과 잎담배, 사과, 호두, 은풍준시가 유명하고, 감천면에서는 사과, 고추, 자색감자, 토마토 등, 호명면은 금싸라기 참외, 유천면은 상황버섯, 표고버섯, 개포면은 청양꽃고추, 보문면은 학가산 산더덕, 학가산 전통메주, 고구마가 유명하다. 용궁면은 예천 참우, 진상미, 포도, 수박이 유명하다. 양잠은 전국 1위이며, 땅콩, 참깨 등은 도내 으뜸이고, 예천 참우는 고급육으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예천군 의사회 소개

1) 연혁

예천에는 과거 권외과의원, 영남의원, 제일의원, 예천의원 등 4개의 의료기관이 있어왔으나 의사회로서의 활동은 미미하였고 권외과의원의故권성진 원장님께서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오셨다. 이후 故권성진 원장님께서

1989년에 예천권병원으로 확장 개원하시고 1990년에 인성의원(강갑성 선생님), 윤의원(윤성준 선생님)이 개원하면서 의사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초대회장으로는 권성진 원장님께서 추대되어 1995년 작고하실때까지 맡으셨으며 이후 강갑성 원장님이 이어 받아 지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의료기관 현황

현재 예천군에는 병원 1개, 요양병원 1개 및 의원 15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개원의 16명, 봉직의 7명, 공보의 13명이 진료에 임하고 있다.

3) 의사회 활동 및 주요사업

예천군의사회는 격월간의 정기모임, 송년회, 사안별 긴급모임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골프모임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원간의 단합과 친목을 중시하며 과거의 약분업 투쟁시부터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회원이지만 모임이 활발한 편이라고 자부한다. 대외적으로는 지자체 및 보건소와 협조하여 여러 가지 보건사업(전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군민장학재단 기부금납부, 구제역 방역사업 후원, 군민 건강 달리기 후원 등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일부 회원은 건강강좌, 무료검진 등의 자발적인 지역봉사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큰 모범을 보이고 있다.

(정리 : 총무이사 권규호)

☑ 임원명단 : 회장 이상호, 총무이사 권규호

예천관광지 소개

- 감천 신라식물원 (<http://www.sinrafarm.com>)
- 천호예술원
- 예천진호국제양공장
- 예천천문우주센터 (<http://www.portsky.net>)
- 회룡포 (<http://dragon.invil.org>)
- 삼강주막 • 예천온천
- 예천곤충생태체험관 (<http://www.ycinsect.go.kr>)



주변 맛집

- 박달식당(용궁면) : 순대국밥 등 (054-652-0522)
- KBS 1박2일에 나와서 더 유명해짐
- 단골식당(용궁면) : 순대국밥 등 (054-653-6126)
- 새대구숯불갈비식당(예천읍) : 3대째 전설의 예천한우맛 (054-654-1547)
- 백수식육식당(예천읍) : 육회비빔밥 (054-652-7777)
- 전국을 달리는 청포집(예천읍) : 청포묵 (054-655-0264)
- 참우촌(예천읍) : 예천참우 (054-655-4288)

의약품 조제료 이대로 좋은가?

경상북도의사회 의약품정책위원회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정도이나 보험재정 지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가 건보재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약국 조제료는 2조 7500억원 정도가 되며 이는 약국 약값의 32%정도로 상당히 높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EDI 청구금액을 토대로 조사해보니 고혈압은 조제료가 약값의 51%, 당뇨병은 75%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고혈압이나 당뇨의 경우 단일품목 또는 몇가지 품목으로 처방을 하면 1통(PTP포장, 포일포장)이나 1병, 1팩씩 건네주면서 30~91일의 높은 조제료를 받는데 큰 문제가 있다. 건정심에서 1병이나 1팩씩 주는 약들을 1일 조제료로 환원하지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병·팩 논의에는 낱알 포장모음(PTP, foil)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단일품목 뿐만 아니라 몇가지의 약을 처방하더라도 분포지에 개별포장을 하지않고 단순히 몇 가지 약을 건네줄 때도 1일 조제료로 전환해야 한다. 참고로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조제시에 거의 대부분이 PTP 포장상태(80%)로 환자에게 제공되며, 분포지에 개별포장(20%)할 경우만 조제수가 다르게 산정된다고 한다.

1.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흔히 처방하는 약을 1달분씩 처방한다면 약값, 조제료, 진찰료는 어떻게 될까?

품 목	2009년 EDI 청구액(억)	단가 (원)	1달 약값	1달 조제료	진찰료 + 처방료	조제료 /약품비	예상 조제료 (억)
노바스크정 5mg	671	418	12540	9200	8530	0.73	492
아모디핀	543	396	11880	9200	8530	0.77	421
아마릴엠펙정 2/500mg	217	367	11010	9200	8530	0.84	181
아마릴정2mg	187	325	9750	9200	8530	0.94	176
다이아백스정 500mg	106	94	8460	9200	8530	1.13	129

2. 혈압약을 1달씩 처방했을 때 조제료는 혈압약값의 51% 정도가 된다.

품 목	2009년 EDI 청구액(억)	조제료/약값	예측조제료(억)
ACE억제제	462	0.45	208
CCB	4004	0.68	2715
ARB	5940	0.36	2150
알파차단제	154	0.56	86
베타차단제	1095	0.73	801
총 계	11655	0.51	5960

3. 당뇨약을 1달씩 처방했을 때 조제료는 당뇨약값의 75% 정도가 된다.

품 목	2009년 EDI 청구액(억)	조제료/약값	예측 조제료(억)
Biguanide	275	1.08	297
Sulfonylurea 2세대	1037	0.92	953
알파Glucosidase억제제	382	0.47	178
Meglitinide	111	0.35	39
Thiazolidinedions	168	0.33	56
Gli benclamide+melformin	31	0.95	29
DPP4억제제	194	0.44	86
총 계	2198	0.75	1638

4. 감삼선기능 저하증약인 씌지로이드 0.01mg의 약값은 1정 36원, 1달분 1,050원, 1달 조제료는 9,200원으로 약값의 8.96배나 된다. 2009년 EDI 보험청구액이 36억 이었는데 1달분씩 처방했다면 단순히 조제료로만 315억원이나 지출된 셈이다.



씌지로이드 포장형태(병)

5. 여성호르몬 제재인 리비알정은 1정 406원, 1통(PTP포장)이 28정이므로 약값은 11,368원, 28일 조제료는 9,200원

이다. 2009년 EDI 보
 함청구액이 140억이
 로 만약 1통씩 처방이
 나갔다면 조제로로 약
 값의 81%인 113억원이
 나 든 셈이다.



여성호르몬제제의 포장형태들
 (PTP포장, 팩)

6. 2011년 조제로와 진찰료 비교

조제일수	조제로(원)	진찰료+처방료(원)	조제로/진찰료
1일	3930	8960	0.44
30일	9590	8960	1.07
60일	13240	8960	1.48
90일	14320	8960	1.6
91일 이상	14690	8960	1.64

■ 조제로 종합

제 품 명	청구액(억)	포장(정)	단가(원)	1통약값(원)	1통조제로(원)	조제로/약값	조제로(억)
씬지로이드	36	100(30)	35	3500(1050)	13940(9200)	3.98(8.76)	142(315)
씬지로이드정0.05mg		30	13	390	30일분9200	23.59	
씬지록신정0.05mg		30	26	780	30일분9200		
씬지로이드정0.15mg		30	24	720	30일분9200		
훼로바유서방정	53	30	95	2850	30일분9200	3.23	171
리비알정	140	28	406	11368	28일분9200	0.81	113
안젤릭정	50	28	10400/28	10440	28일분9200	0.88	44
크리멘28정	46	28	10783/28	10783	28일분9200	0.85	40
스티렌	836	30	231	6930	10일분6220	0.9	750
노바스크정5mg	671	30	418	12540	30일분9200	0.73	492
아모디핀	543	30	396	11880	30일분9200	0.77	421
올메텍정20mg	431	30	778	23340	30일분9200	0.39	170
올메텍플러스정20/12.5mg	430	30	780	23400	30일분9200	0.39	169
현대테놀민정	111	30	261	7830	30일분9200	1.17	130
현대테놀민정25mg	79	100	158	4740	30일분9200	1.94	153
자니딤	210	30	421	12630	30일분9200	0.73	153
오로디핀	262	30	387	11610	30일분9200	0.79	208
애니디핀	81	30	218	6540	30일분9200	1.41	114
아모잘탄5/100mg	49	30	945	28350	30일분9200	0.33	16
아모잘탄5/50mg	31	30	785	23550	30일분9200	0.39	12
리피토정10mg	627	30	917	27510	30일분9200	0.33	210
크레스토정10mg	519	28	995	27860	28일분9200	0.33	171
리피논10mg	186	30	835	25050	30일분9200	0.37	68
오마코(오메가3)	235	28	566	15848	28일분9200	0.58	137
아미릴엠정2/500mg	217	30	367	11010	30일분9200	0.84	181
아미릴정2mg	187	30	325	9750	30일분9200	0.94	176
다이아백스정500mg	106	100	94	9400	33일분11480	1.22	129
우루사정200mg	185	100	264	26400	33일분11480	0.43	80
우루사정	68	100	111	11100	33일분11480	1.03	71
레가론캡셀 140	121	60	247	14820	30일분9200	0.62	75
인사돌정	27	60	166	9960	20일분8410	0.92	23
스틸녹스정10mg	69	30	324	9720	30일분9200	0.95	65
알프람정0.25mg	36	30	77	2310	30일분9200	2.87	96
데파스정	32	30	90	2700	30일분9200	2.3	74
뉴로메드정	87	30	671	20130	30일분9200	0.46	40
타겐에프연질캡셀	223	90	426	38340	30일분9200	0.24	53
싱쿨레어10mg	223	28	1449	40572	28일분9200	0.23	50
칼디비타츠헤어블정	56	60	161	9660	60일분12720	1.32	74
자이로릭	41	100	127	12700	30일분9200	0.72	37
하루날디정0.2mg	406	30	1016	30480	30일분9200	0.3	123
자트랄엑스엘정10mg	166	30	777	23310	30일분9200	0.39	65
하이트린정2mg	70	30	415	12450	30일분9200	0.74	52
씨엔정100mg	37	90	205	18450	30일분9200	0.5	19
악토닐정35mg	236	4	7571	30284	4일분4590	0.15	36
포사맥스플러스정	183	4	8118	32472	4일분4590	0.14	26
오스테민캡셀	82	180	78	14040	30일분9200	0.65	54

삼월의 눈

삼월에 내리는 눈은
지난 해 복사꽃 혼령이다.
풀리는 강, 방랑하는 안개 품으로
스스럼없이 몸을 던지고
황사바람, 초록 꿈에 뒤쳐는
들판으로 떠돌다
발갡게 부푼 복사꽃 가지 끝에서
꽃의 길을 연다.

머물 수 없는 시간을 건너
눈부신 순백의 꿈을 펼치다
짧은 침묵 후
온 세상을 떠돌다 온
바람을 따라
오랜 갈증에 목이 타는 들판에
소금기 없는 눈물
한 방울로 스러진다.

이른 삼월에 내리는 눈은
기다림에 지친 복사꽃 눈에
꽃술 없는 꽃으로 피었다
흔적도 없이 지고 있다.



김용주 병원장
안동병원

납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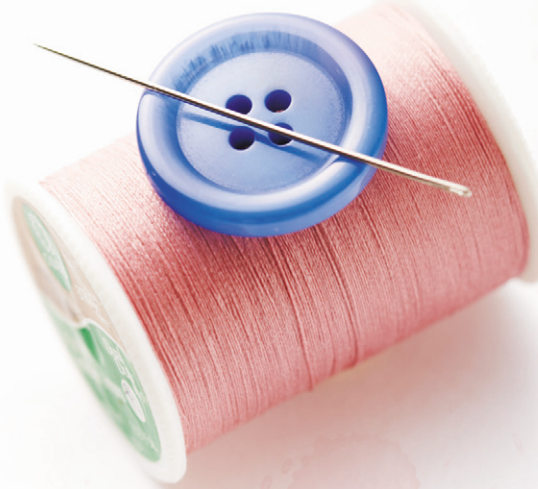
겨울을 난 납매는
얼어 붙은 손가락 마디 마디를
꽃으로 피워낸다
선달 작은 꽃이 잎보다 먼저
한객으로 찾아 온다
빛이 아니라
향기로 세상에 자신을 알린다

추위 웅크린 별들의 잠을 깨우는 것은
요란한 꿩가리바람 소리도
현란한 꽃잎의 춤사위도 아니었다

납매는 끝내 모를것이다
봄을 흔들어 깨우는 것은
제 청초한 침묵의 향기란 것을



신명준 원장
신명준외과의원(포항)



바늘

바늘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다. 석기시대에는 뽕족한 돌이나 동물의 뼈 또는 가시나무도 바늘의 역할을 한몫 단단히 했다. 그 후 청동기시대나 철기시대를 거치면서 바늘은 아주 중요한 지위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바늘은 매우 미세하거나 하잘것없는 일을 비유할 때도 많이 인용한다. 그런 하잘것없고 쓸모없는 것이 바로 인간생활의 가장 위대한 업적의 시초가 된다. 너무 보잘것없어서 등한시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큰일은 대개 바늘구멍에서부터 시작한다.

바늘은 그 종류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옷을 꿰매는 바늘, 주사바늘, 찢어진 살을 봉합하는 의료용 봉합 침, 십자수바늘, 뜨개 바늘, 유성기 바늘,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도록 pvc 제재로 만든 수액 주입용 바늘, 낚시 바늘 등등... 모양도 가지가지이다. 똑바로 된 바느질 바늘, 구부러진 바늘, 실 구멍이 있는 바늘, 실 구멍이 없는 바늘, 양면을 날카롭게 날을 세운바늘, 둥글고 끝만 예리한 바늘, 미늘이 있는 낚시 바늘, 미늘이 없는 바늘... 각 나라마다 용도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이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다. 바늘은 모양이나 기능과 아울러 특징과 섬세함까지도 갖추어야만 한다.

바늘 끝은 뽕족하고 예리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경각심을 일으킬 때도 바늘을 쓰기도 한다. 독극물이 첨가되면 살인용 무기가 된다. 유성기를 틀어놓으면 진동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동화 장치에 연결되어 재봉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로 바늘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모두가 관심을 두지도 않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것도 바늘이다. 바늘구멍을 지나는 무색투명의 햇빛이 프리즘으로 통과하면 빛의 굴절이나 산란되는 과정도 볼 수가 있다. 빛의 성분을 알게 된 것도 기실은 바늘구멍으로부터 시작한다. 바느질집에서 만들어진 고운 한복은 바늘 끝에서 시작해서 바늘 끝에서 마무리가 된다. 칵테일을 만들 때에 큰 조각의 얼음을 작게 부서뜨리는 건 역시 바늘이 제격이다.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할 때도 바늘이란 단어가 자주 인용되기도 한다. 불편한 상황을 이야기 할 때도 바늘방석이라고 역시 바늘을 인용한다.

결국 가장 미세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결과를 이루어냈다면 지나친 억측이 될 런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바늘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긴요하고 중요한 도구였다.



이종규 원장
연세가정의학과의원(울진)



근래 우리는 그런 바늘에 조금씩 무심해지고 있다. 방물장수 할머니들에게 바늘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인기 있던 상품이 되기도 했다. 도란도란 속삭이며 떠느리는 시누이랑 시어머니와 둘러앉아서 시어른의 이부자리를 시침질 하면서 고운 정과 미운 정을 바느질하며 시집살이를 했다. 요즈음 바느질을 하거나 뜨게 바늘을 사용하여 겨울 스웨터를 짜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바느질하는 어머니나 할머니의 모습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장터에서는 실과 바늘을 파는 붓짐장수나 가게를 찾아보기도 힘들어 진다. 대신 바늘의 용도는 보다 다양해졌다. 원시시대의 기능에서 현재는 첨단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바늘은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첨단과학의 응용으로 보다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변화되어 본래의 역할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었다. 극미량의 마취약이 첨가되어 무통주사가 개발되기도 하는 등 다방면으로 생활에 응용 되고 있다.

바늘은 의과대학에 입학하면서 바야흐로 의사에게는 필수적인 도구로 접근해왔다. 해부학실습 시간에 실수로 잘라버린 근육을 눈속임하려고 바느질을 하기도 했다. 의사는 환자의 상처를 봉합하면서 기능은 물론이고 모양이나 피부 결에 맞춰 가능한 흉이 덜 지게 하려고 신경이 곤두서기도 한다. 바느질 솜씨가 좋은 저고리는 입을 후에도 맵시가 있듯이 상처가 치유된 후의 상흔은 또 의사들의 솜씨를

대변해 주기도 한다.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손은 아주 섬세하다. 대충 대충 실과 바늘만으로 상처를 봉합하는 게 결코 아니다. 꿰매는 기술만으로 친다면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가 훨씬 더 섬세하고 예쁠 수도 있다. 자동화 기계를 사용하면 일률적이고 튼튼하게 봉합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봉합할 때는 해부학적인 기능과 역할 그리고 상처와 후유증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인체의 상처부위는 기본이 내키는 대로 뜯거나 풀어버리고 다시 봉합 할 수는 없다. 한 바늘 한 바늘을 봉합하면서 이 상처가 바로 내 몸의 상처라면 어떻게 봉합을 해야 가장 편하고 만족할까를 생각하면서 봉합을 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 의사들은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 의사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환자들은 오히려 미안한 감정은 물론이며 진정으로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된다.

국소마취를 한 환자들은 모든 봉합하는 과정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전 과정을 보고 있다. 아무리 하찮은 상처라고 해도 통증을 동반하고 출혈이 있는 한 환자들의 심리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주어진 조건에서는 최선의 치료와 최고의 진료를 받고자한다. 스스로 얼굴이 찌푸려지고 인상을 쓰던 환자의 얼굴이 차츰 안정이 되어 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요즈음은 철사로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다. 고식적인 방법으로 진지하게 의사들의 손에서 한 뼘 한 뼘씩 정성을 들인 경우에 환자들은 정말로 고마

바늘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감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

정성들여 봉합한 한 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며
후유증이나 흉터 또는 기능이나 모양을 같이 걱정해주고
위로 할 때 상호간의 신뢰감은 돈독해진다.

운 감정과 신뢰감을 갖는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철사나 봉합기계를 사용한 환자들은 자기의 봉합부위를 바라보면서 실로 객쩍은 미소를 짓곤 한다. 철사로 봉합된 상처를 보며 기계화 물질에 휩쓸린 자신의 처지를 자조하는 웃음을 짓곤 한다. 반면에 정성들여 봉합한 상처 부위의 실매듭 하나하나 조차도 연민을 느끼며 후련한 듯 아쉬운 감정으로 진료실을 나서는 많은 환자들도 있다. 간혹 기능보다는 외형적인 면이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면을 추구하다가 더 큰 장애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바늘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감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 정성들여 봉합한 한 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며 후유증이나 흉터 또는 기능이나 모양을 같이 걱정해주고 위로 할 때 상호간의 신뢰감은 돈독해진다. 환자와 상호 신뢰의 벽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으뜸이다. 그 모든 일은 바로 아주 미세한 바늘 끝에서 이루어진다. 의사들의 봉합바늘에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바늘이 있

고 기능을 복구하는 바늘이 있다. 또한 생명을 좌우하는 바늘이 있고 정감이 넘치는 바늘도 있다. 예리하고 뾰족한 바늘 끝이야말로 도덕과 윤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의학이나 철학까지 모든 것이 망라된 집합체이다. 무너지고 훼손된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바늘 끝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젊은 의사들의 숙명이기도 하다.

바늘은 청진기와 더불어 아직까지는 의사들에겐 가장 필요한 의료도구이기도 하다. 규중철우(인두, 다리미, 자, 가위, 바늘, 실, 골무)와는 달리 진료실의 철우는(청진기, 혈압기, 핀 또는 메스, 가위, 바늘, 실, 장갑) 철학과 윤리와 첨단 과학의 산물이다.





떠나는 그 길이 봄날처럼 포근하기를...

故 장세국(張世國) 교수 영전에

아! 슬프도다.

온갖 생명들이 살아나는 이른 봄날에 우리 동기생들은 장교수를 떠나 보내야 한단 말이나?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태산과 같은데, 더구나 장교수가 선봉에 서 주어야 할 이 중대한 시기에, 이렇게 동기생들만 남겨두고 기어이 혼자 그렇게 떠나야 했던 말이나?

지금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야속한 시간이 아닐 수 없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인생은 구름처럼 덧없다는 옛말에 기대어, 우리는 이 비통함을 달래어 보는구나. 그러나 마음의 한 자리에 구멍이 뚫린 듯한 허전함을 막을 길이 없구려. 생자필멸(生者必滅), 제행무상(諸行無常), 장교수가 남긴 빈 자리에는 이 가르침을 올려 놓고 장교수의 모습을 조용히 떠올려 본다.

장교수는 1939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1964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인턴과정을 마쳤다. 그 후 경북대학교병원 및 제1육군병원 비뇨기과 레지던트를 수료, 군복무 후 서울 시립 남부 및 동부병원에서 잠시 몸을 담았다가 1973년 경북의대 전임강사로 부임하여, 2004년 경북대병원을 떠나기까지 32년 여 동안 인생의 황금기를 오로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과 경북대학교병원의 발전과 후학 육성에 열성적으로 이바지 하여서 오늘날의 경북대학교 발전에 일조하였었다.

그 동안 장교수의 학구열과 예리한 판단력, 뛰어난 수술기량은 많은 추앙을 받았었다. 장교수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과 경북대학교병원에 봉직하면서 학문에 대한 열정과 후학들의 교육지도에 매진하여서, 10여편의 박사 학위논문과 24여편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하고, 96여편의 창의적인 논문을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및 대한내과학회지 등에 발표하였었다.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장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60여명의 문학생들은 한국 비뇨기과 각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인생은 구름처럼 덧없다는
옛말에 기대어, 우리는 이 비통함을 달래어 보는다.
그러나 마음의 한 자리에 구멍이 뚫린 듯한 허전함을 막을 길이 없구려.

분야에서 장교수의 뒤를 이어 오늘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문하생들의 마음속에
는 언제나 장교수님 이라는 거목이 자리 잡고 있네.

또한, 대한비뇨기과학회의 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 부어 오늘날의 대한비뇨기과
학회의 위상을 정립하였고, 1998년에는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을 맡아 회원상호간의 친
목과 단결, 학회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고, 참된 의도구현(醫道具顯)을 숭선수범한 장
교수의 모습을 떠올려 보노라면 진실로 대한비뇨기과학회의 대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
을 것이네.

장교수는 2002년 9월 경북대학교병원 운영 초대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장을 맡아 온갖
정성을 쏟으며, 경북동북권 지역에서 의료의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 울진 의료원이 오늘날의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의욕적으로 경북 울진군민에게 차원이 높은 인술을 베풀어 지역의료의 발전
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던 중 말년에 신종양 으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음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구려.

오, 해거름의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오게 될 장교수! 물처
럼 흐르는 세월이 자꾸만 흘러가고 있으니, 그렇게 멀지 않은 세월 안에 동기생들도 하
나씩 둘씩 장교수의 곁을 찾아가게 될 것이네. 먼저 가는 장교수가 저승마을의 어느 따
뜻한 양지에다 경북의대 32회 동창회관의 터를 보아 놓으시오. 우리가 가면 다시 동기회
장으로 모실 것일세. 그 때가서 이승에서 못다 나눈 인정을 풀어보게나. 궁급해 하고 있
을 이승의 소식도 전해 주겠네.

장세국 교수!

이제 이 세상의 일은 동기생들에게 맡기고, 평안하게 새로운 길을 떠나십시오.
우리는 그 길이 봄날처럼 포근하기를, 삼가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장세국 교수!

우리는 만날 때 헤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헤어질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네.
이제 하늘나라에 임하신 영령이시여,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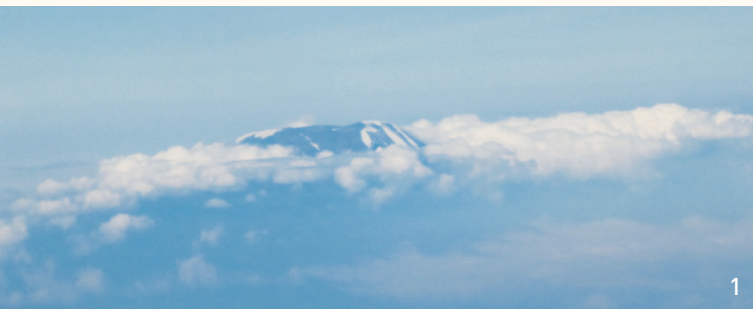
2011. 2. 20.

경북의대 제32회 동기회
포항송라요양병원장 최 동 하 재배

[편집자 주] 2010년 8월, 2주일 넘게 아프리카의 케냐와 말라위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오신 정만진 의장에게 아프리카 의료봉사에 관한 원고를 요청하였다. 우리에게 생소한 아프리카와 의료봉사를 하면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3부로 나누어 연재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제3부 마지막 부분을 싣는다.

아프리카, 아직도 가난하고 위험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의료봉사기 제3부)



1. 비행기에서 본
킬리만자로 정상

말라위 (Malawi)에서의 진료

케냐의 마사이 랜드에서 죽을 뻔한 버스 전복사고 후 케냐에서 이들을 더 머물다 말라위로 갔다. 말라위는 남한 정도의 크기에 인구 1,900만 명이 사는 작고 못 사는 나라이다. 특별한 자원도 없고 탐나는 것이라고는 별로 없어 외세의 침범도 별로 받지 않았다고 한다. 말라위는 케냐에서 남쪽으로 탄자니아를 지나 약 1,5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나이로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조금 날아가면 조종사가 방송을 한다. 저기 왼쪽 구름 위에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5,895m) 정상이 구름위에 떠 있다고 말이다.

말라위는 1인당 국민소득이 천 불도 안 되며 에이즈 감염자가 많으며, 평균수명 37세의 세계 최빈국의 하나이다. 전체 의사수가 300명 정도이고 내과전문의 10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0명 정도라니 더 이상 의료수준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도 리롱케 공항에 내려 시내로 들어가면서 보니 의외로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케냐보다 못사는 나라지만 도로 사정은 케냐보다 훨씬 좋았다. 마치 미국의 어느 대도시 교외에 온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케냐보다는 훨씬 호감이 갔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였다.

말라위에 도착한 첫날은 우리 팀에 의사가 나 혼자 뿐이라서 다음 날 오는 10여 명의 의사를 포함한 진료 팀과 함께 진료를 하기로 하고 말라위호수(Malawi lake)로 구경을 갔다. 수도 리롱케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말라위 호수는 호수라기보다 바다 같이 넓었다. 길이가 365 마일(약 600km)이나 되어 일년 365일과 같다하여 calendar lake라는 별명이 붙은 이 호수의 폭이 50~100km라고 한다. 해변 아니 호변에는 모래사장도 있고, 중간에 작은 섬도 있었고, 아담한 해변 호텔도 있었다. 호수의



정 만 진 의장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 2. 바다 같은 말라위 호수와 호변
- 3. 복도에서 대기하는 환자들
- 4. 말라위 소녀를 진료중

유역 면적이 우리나라 국토의 29%에 해당될 정도여서 아무리 생각해도 호수로 보이지 않고 바다로 보일 정도로 넓었다. 말라위 도착 둘째 날 우리는 보텀 병원(Bottom Hospital)이라는 곳에서 진료를 했다. 이 병원은 과거 우리나라에 못 사는 사람들이 가던 시립병원 비슷한 곳으로 수도 리롱케에서 두 번째로 큰 병원이지만 건물은 무척 낡아 있었다. 이 병원에는 닥터가 3명밖에 없단다. 그러면 어떻게 진료를 하나 하고 알아보았더니 이 나라는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좀 달랐다. 진료를 하는 의료인을 네 등급으로 나누는데, 2년 정도 의학공부를 하면 medical assistant라는 제일 아래 등급의 의료인이 되는데 이들도 진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등급인 clinician도 진료를 하고, 그 다음이 정식으로 6년제 의과대학을 나온 doctor이고, 그 다음이 전문의라고 한다.

보텀병원에는 전문의도, 좋은 약도 별로 없었고 진료비 또한 없었다. 우리는 이 병원에 진료공간을 확보하여 진료를 시작하였는데, 한국의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좋은 약을 많이 갖고 왔다는 소문이 나자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우리가 진료한 전공과목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안과 치과 한방과 등이었으며, 나는 소아과 외래병동에서 진료를 했다. 거기에는 젊은 여자 clinician 세 명이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벤치 같은 의자에 앉아 청진도 하지 않고 인후와 귀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몇 마디 물어보고

열이 있다면 아스피린 처방을 해주는 것이 전부였다. 첫날은 우리 봉사단 진료에 대하여 잘 모르다가 둘째 날이 되자 많은 환자들이 우리 봉사팀에게로 왔다. 심지어 거기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clinician까지 진료를 받으러 와서 우리가 가지고 간 약품 리스트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자기들은 듣기만 했던 최신 약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들은 차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나눠주는 작은 수첩 같은 것을 환자 본인이 들고 다니며 거기에 기록을 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말라위 사람들은 하루에 식사를 두 번만 하기에 약 투여 시에도 1일 3회(tid)로 주기가 곤란하여 tid약도 약국에서 1일 2회(bid)로 나누어 주었다. 이곳에는 WHO 공식 통계로 AIDS환자가 11%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30% 이상이 에이즈 환자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우리 봉사팀의 치과 선생님들은 발치를 해야 하므로 에이즈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AIDS 검사 키트를 가지고 와서 발치를 원하는 사람은 발치 전에 AIDS 검사부터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성인의 1/3이상이 실제로 AIDS 양성이나왔다고 한다. 정말 그렇게 AIDS가 많을 줄은 몰랐다.

말라위에서 잊지 못할 일들

말라위는 영국 식민지라서 남자들은 대부분 영어를 하

는데, 교육을 받지 못한 여자들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첫날 진료를 하는데 현지어와 영어를 아는 통역이 없어 애를 먹었다. 그러던 중 50대의 젊잖게 보이는 남자가 와서 통역을 해주겠다고 자원하였다. 영어 발음도 좋고 내 말과 의학용어도 잘 알아들었다. 정신없이 첫날 오전 진료를 하고 조금 틈이 나서 그에게 물어보았더니 자기는 고등학교 선생이며 영어와 생물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력이 높고 의학용어를 잘 알아들었던 것 같았다. 첫날 진료가 끝나갈 무렵 앞으로 3일간 더 진료를 해야 하는데 계속 통역을 해 줄 수 있는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이 지금 방학 중이라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참으로 고마웠다. 자신은 왜 오늘 이 병원에 왔느냐고 물으니 가슴이 아파서 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내과 선생님에게 데려가서 진료도 시켜주고 안과에 가서 안경도 하나 맞추어 주었다. 다음날 그를 만나서 내가 한국에서 갖고 간 커피 김 등의 반찬과 여러 가지 물건을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우리 봉사팀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점심도 같이 먹고 월드캠프의 음악회에도 데리고 갔다. 가족 중에서 진료할 사람이 있으면 데려 오라고 했더니 형수를 위하여 당뇨병 약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세 달분의 약도 주었다. 봉사를 하고 있으니 봉사하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았다.

또 하나 말라위에서 잊지 못할 일은 말라위 한인회장 집에서 저녁 대접을 받은 일이다. 이곳 말라위까지 이렇게 많은 의사들과 봉사자들이 온 적은 없었다. 그래서 특별히 40대의 여성 한인 회장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대접을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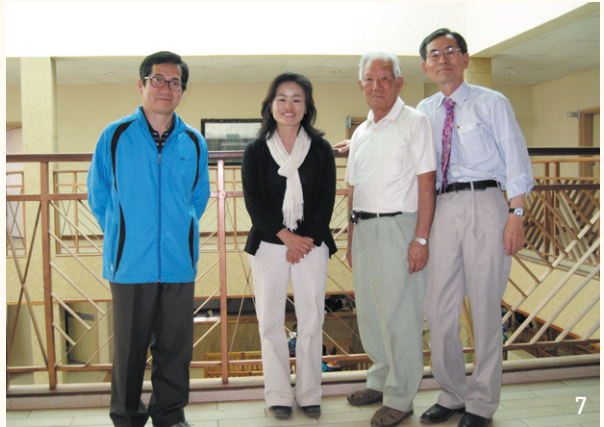
말라위에는 한국인이 70여 명 살고 있단다. 그녀의 70대 중반의 부친이 베트남에서 건설회사에 직원으로 있었는데 그곳의 일이 끝나고 그 회사가 말라위 공항건설을 수주하여 이곳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인 회장은 풀장이 있는 저택에서 잘 살고 있었다. 그녀가 손수 우리 우리나라 음식을 만들어 주었는데, 맛도 있었지만 그보다 그녀의 마음 씩씩이가 더 구수한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말라위 유일의 18홀 골프장을 구경할 수 있었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져서 50년이나 되었지만 골프장의 관리 는 영 말이 아니고 골프 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못할 일은 한국인 간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대양병원을 방문한 것이었다. 말라위에서는 길에서 택시를 잡을 수도 없고 휴대폰도 안 되니 자유시간이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곳 택시는 우리나라 30여 년 전과 같이 전화로 택시 요금을 흥정하



5. 우측 두 번째가 통역 Zuze씨
6. 수영장이 있는 한인회장의 저택

7. (좌로부터) 이진욱의사,
백영심이사장,
한인회장 아버지와 나



여 콜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한인회장 아버지가 2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 대양병원까지 자기의 벤츠 승용차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말라위의 병원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유료병원도 많이 있으며 대양병원은 봉사를 목적으로 하나 원칙적으로 유료병원이었다.

제주도 태생의 간호사 출신으로 대양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사장 백영심씨는 케냐에서 오랫동안 의료봉사활동을 하였는데 우리나라 대양상선의 후원을 받아 말라위 리롱케 공항 근처에 넓은 터를 잡고 병원과 간호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의과대학까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수단의故이태석 신부와 비슷한 경우로 조선일보에 백영심씨와 대양병원에 대하여 크게 소개된 적이 있다. 두 분 모두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이태석 신부님은 대장암으로 선종하셨는데, 백영심 이사장은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소개하였다. 내가 만난 백영심 이사장은 자그마한 키에 선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 오래 이야기 하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음에 감명 깊었다.

나 볼펜 받았어 !

나는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 아프리카 지도도 그려보고 진료를 위한 영어회화 공부도 하였다. 그러던 중 나보다 2주 정도 먼저 아프리카 가나에 의료봉사를 갔다 왔던 포항의 신명준원장에게 전화를 하여 이런저런 아프리카 정보를 수집하던 중에, 뭘 아프리카에 가면서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몰려들어 손을 벌릴 때 무엇인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볼펜 같

은 것을 준비해 가면 하나씩 줄 수 있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었다. 그 소리를 듣고 영천시 의사회장에게 부탁하여, 영천시 회원들에게 기념으로 받아서 쓰지 않고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는 볼펜을 좀 모아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170여 개의 각 가지 형상의 볼펜을 모아 주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30여 개를 합하여 200여 개의 볼펜을 나의 여행가방에 넣고 갔다. 너무 많아도 가지고 가기 어려우니 적당하였다.

나는 진료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준비해간 사탕을 하나씩 주었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볼펜을 하나씩 주었다. 또한 외부 진료를 나갔을 때 운동장에 놓고 있던 아이들이 몰려와서 손을 벌릴 때 하나씩 주면서 요긴하게 썼다. 그런데 아프리카 아이들은 줄을 서서 받을 생각을 않고 받고 돌아서서 또 받으려고 욕심을 부렸다. 10여 명이 몰려있던 운동장에서 볼펜을 나누어 주다가 내 손에 있던 볼펜을 잡기 위하여 뛰어오르다가 넘어지는 해프닝까지 연출되었다. 그렇지만 그 볼펜들은 케냐의 마사이족에서부터 말라위의 빈민촌 아이들에게까지 여러 나라 여러 곳에서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선물이 되었다.

글을 마치며

아프리카 가는 길은 참으로 멀었고, 아프리카는 아직도 가난하고 위험한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프리카에서 희망을 보았다. 옛날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곳은 아니었다. 시내에는 교통정체를 걱정해야 할 만큼 차들이 많아지고 벤츠와 같은 고급 승용차로 드물지 않게 눈에 띄었다.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아프리카, 그곳에도 이제 60년대 우리나라처럼 경제개발과 건설의 함성이 울려 퍼



8



9

지고 있었다.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기대할 할 수 있는 곳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수준 또한 낮았다.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과 에이즈, 한센병, 결핵 같은 만성병의 문제가 심각하고, 평균수명 또한 우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많은 세계인이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멀지 않아 의료혜택도 크게 개선되리라 믿는다.

봉사를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한다. 정말 그랬다. 매일 불평이나 하고 부모님에게 투정이나 부리던 학생들이 아프리카를 갔다 오면 그 버릇이 없어지고 효자가 된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어려운 현실을 눈으로 보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케냐의 빈민촌과 마사이 랜드, 말라위 도심의 낡은 병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된 나라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불만이 많아진다고 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물질적 욕망이 정신적 욕망을 앞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진국보다 최빈국의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은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크게 가진 것이 없어도 선한 눈동자를 가지고 노래하고 춤추며 행복해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정말 자신이 불행하고 살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들의 어렵고 불행한 장면을 보면 저절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동안 3부로 나누어 길게 연재된 글을 읽어주신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여행기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경북의사회지 편집위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8. 볼펜을 받으려고 뛰어오르는 아이들
- 9. 볼펜을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
- 10. 키가 크고 날씬한 마사이 족 자매



10

틱(tic)? 틱 장애(Tic disorder)?

틱(tic)은 '갑자기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몸짓을 하거나 소리를 내는 현상'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틱증상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불수의적이며 일정한 리듬이 없고, 또한 뚜렷한 목적이 없다.



몇 년 전에 한 TV 방송에서 심한 틱 장애 환자들의 힘든 생활을 다룬 이후로 틱(tic) 증상이나 틱 장애(tic disorder)라고 하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 방송이 나간 이후 틱 증상으로 외래를 찾은 환자가 한 동안 갑자기 증가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방송에 소개된 것처럼 심한 경우는 틱 장애 환자들 중에는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다행인 것 같다. 예전 학생시절을 가만히 떠올려보면 훈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항상 '음~음' 하시면서 목청을 가다듬으시던(?) 교장 선생님, 특이한 버릇 때문에 늘 학생들의 흉내 대상이 되거나 별명이 따라다녔던 선생님들이 계셨다. 소아정신과를 하고 있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분들 중에 상당수는 '틱(tic) 증상'이 있으셨던 것 같다. TV를 시청하다가도 그 놈의 직업병 때문인지, 틱 증상을 보이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처럼 틱 증상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우스게 소리지만, 소아청소년정신과학회 모임에 가면 틱증상을 보이는 선생님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그 전문의 선생님들 모두가 아무런 문제없이 틱 장애 아이들을 진료하고 계신다.

틱(tic)이란?

틱(tic)은 '갑자기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몸짓을 하거나 소리를 내는 현상'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틱증상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불수의적이며 일정한 리듬이 없고, 또한 뚜렷한 목적이 없다. 야단을 치면 잡시는 참을 수 있지만 오히려 늘어나거나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의지로 쉽게 조절이 되지 않는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틱 증상은 수면 중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상당히 많은 보호자들이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틱을 한다고 걱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성형모 정신과장
차의과학대학교
구미차병원

틱 증상은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 음성틱(vocal tic)과 운동틱(motor tic)으로 구분을 하며,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의 개수에 따라 단순틱(simple tic)과 복합틱(complex tic)으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틱의 형태인 '눈을 깜박이는 것'만 나타나는 경우를 단순 운동틱이라고 하고, 코를 실룩거리거나, 입술을 핥는 행동, 어깨를 으쓱거리는 행동, 손마디를 꺾어서 소리를 내는 행동 등이 대표적인 증상들이다. 복합 운동틱은 두 가지 이상의 운동

틱이 나타나는 경우로 어깨를 움츠리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복합 음성틱의 한 형태로 외설증(coprolalia)이 있는데,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의 말을 내뱉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일반적으로 사춘기를 전후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 증상은 특히 아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

틱 증상의 특징 및 임상양상

틱 증상을 환자 자신이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폭발적으로 발현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며, 증상의 정도나 양상에 있어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악화되었다가 좋아지기를 반복하기도 하며,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해진다. 특히, 컴퓨터 게임이나 TV를 시청하는 동안 특징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다. 편안한 기분으로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완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수면 중에는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부 부모님들은 ‘놀 때는 괜찮더라’ 라면서 아이가 꽤를 부린다고 생각해 심하게 꾸중을 하거나, 자신의 아이가 나쁜 버릇을 가졌다고 버릇을 고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기도 한다.

증상이 나타나는 위치도 많이 변하는데, 눈을 깜박이는 증상을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대부분의 경우 운동틱 증상은 얼굴부위에서 시작하여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사지와 몸통으로 증상의 위치가 변하게 된다. 단순틱으로 시작해서 복합틱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여러 가지 틱을 하다가 하나만 하기도 하는 식으로 늘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개 나이에 따라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평균 7세를 전후해서 발병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2세경에 관찰되기도 한다. 뚜렛 장애의 경우 13~14세까지는 증상이 점차로 심해지면서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16세부터는 감소해서 20세 이후 많이 줄어들거나 소실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후 성인이가 되면 대체로 70%이상

서 증상이 사라지며, 20%이상에서는 증상이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과는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틱을 한다고 모두 틱 장애는 아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틱 증상이 나타난다고 모두 틱 장애는 아니며, 반드시 치료(특히,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정신과의 진단기준인 DSM-IV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틱의 정도가 충분히 심해서 일상생활에 의미 있는 장애를 유발할 때 비로소 틱 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만이 약물치료의 대상이 된다.

틱 장애는 증상의 형태와 기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한다. 증상이 4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일과성 틱 장애(transient tic disorder)’ 라고 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연속 무증상 기간은 3개월 미만) 음성틱 혹은 운동틱 중 한 가지만을 하는 경우 ‘만성 틱 장애(Chronic vocal or motor tic disorder)’ 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뚜렛 장애(Tourette disorder)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연속 무증상 기간은 3개월 미만) 음성틱과 두 가지 이상의 운동틱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질병의 특성 뿐 아니라, 치료방법과 예후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며, 뚜렛 장애의 경우 증상이 가장 심하다는 것 외에도 실행기능의 장애, 감각통합의 어려움, 자기조절능력의 저하 등 다른 신경인지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게 된다. 틱 장애의 유병률은 일과성 틱 장애의 경우 10~15%정도로 보고 있으며, 만성 틱 장애는 1.5%, 뚜렛 장애는 0.1~0.6%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인론

틱의 원인과 관련된 신경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선조체(striatum)에서의 도파민(dopamine) 체계의 이상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는 SPECT나 PET, fMRI등의 연구에서도 확인이 되었으며, 실제로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을 이용하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이런 신경생물학적 요인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유전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일관성 쌍생아에서의 일치률은 만



틱 증상이 나타난다고 모두 틱 장애는 아니며, 반드시
치료(특히,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틱의 정도가 충분히 심해서 일상생활에 의미 있는 장애를 유발할 때
비로소 틱 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만이 약물치료의 대상이 된다.

성 틱 장애와 뚜렛 장애를 포함하면 94~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최근 연구들에서는 뚜렛 장애를 중심으로 틱 장애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출산과정에서의 손상이나 합병증 등의 환경적인 요인, 심리적 요인, PANDAS와 관련된 면역학적 이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앞의 2가지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틱 장애의 치료

틱 장애의 치료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동반질환의 유무이다. 특히, 뚜렛 장애의 경우 강박증이나 ADHD, 기분장애 등이 자주 동반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지며, 심지어 한 가지를 치료하다보면 다른 증상들이 나빠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틱 증상만을 가진 경우로 한정해서 간단히 치료를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일시적이거나 다른 정신과적 동반질환이 없는 정도가 약한 틱 장애의 경우에는 약물치료보다는 생활에서의 관리나 심리치료적 기법을 우선하게 된다. 여기에는 틱 증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아이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불안과 걱정을 도와주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제공(틱 장애에 대한 교육)하여야 하며, 틱을 유발하는 인자들을 찾아서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스트레스 관리기법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틱 증상에 대해서는 '습관 뒤집기(habit reversal)'와 같은 비약물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심한 틱 장애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증상의 기복이 심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약물치료보다는 생활 관리나 비약물적 치

료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며, 필수적이다. 치료를 결정할 때에도 환자의 기능 정도를 반드시 평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심한 증상으로 인해 기능의 장애나 야기되는 문제의 결과가 우려할 만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행동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될 것이다. 약물치료는 도파민 기능을 억제하기 위해 항정신병 약물을 흔히 사용하게 되는데, haloperidol, pimozide같은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온 약물도 있지만, 최근에는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risperidone, aripiprazole, ziprasidone 등과 같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ADHD 등 다른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더욱 복잡해지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틱 장애의 약물치료와 관련하여 모든 틱 장애 아이들이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약물치료는 단순히 증상의 조절만을 위한 것이지 이를 통해 틱 장애가 치료된다거나 후유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틱 장애 환자인 아이들이 증상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느끼고, 스스로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많은 저해가 초래되고 있다면 약물치료를 미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약물치료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환자(보호자)와 의사가 같이 생각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이다.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0년 12월 ~ 2011년 3월)



포항시

김재우 _ M아이센터안과의원
(791-804)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87-3
존메디컬 2층
T. (054)249-8275 / F. 249-8276

김재웅 _ 온누리한빛안과의원
(791-844)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4-6
미르빌딩 4층
T. (054)277-0750 / F. 277-0752

정영철 _ 제이스마인드의원
(791-841) 포항시 북구 죽도동 44-8
T. (054)278-7240 / F. 278-7241

천재우 _ 맨남성의원
(791-090) 포항시 북구 상원동 462-5
스타타워상가 3층 302호
T. (054)231-7001 / F. 231-7009

서울아동병원
(791-270) 포항시 북구 양덕동 1188-6
T. (054)250-7500 / F. 250-7579

조은요양병원
(791-804)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87-3
T. (054)230-7500 / F. 230-7570

포항해도요양병원
(790-862)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4
T. (054)244-7582 / F. 244-7581

경주시

전규하 _ 새천년연합의원
(780-947) 경주시 성동동 386-1
T. (054)745-1515 / F. 745-3399

안강병원
(780-805)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839-6
T. (054)760-8800 / F. 763-9777

효인요양병원
(780-901)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417-6
T. (054)751-0102 / F. 0505-502-5249

안동시

임승혁 _ 리세비뇨기과의원
(760-310) 안동시 옥동 791-5
신성타워 201호
T. (054)852-3315 / F. 852-3318

임승현 _ 로템의원
(760-802)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77-6
T. (054)858-1915 / F. 858-1915

우리여성병원
(760-310) 안동시 옥동 994-8 (3층)
T. (054)850-3575 / F. 843-3577

구미시

강희철 _ 선산신통의원
(730-804)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342-4
T. (054)482-4600 / F. 482-4601

배종대 _ 미라클의원
(730-932) 구미시 황상동 314-20
순현빌딩 4층
T. (054)472-5995 / F. 472-5997

서준원 _ 선산의원
(730-804)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311-5
T. (054)481-8838 / F. 481-6119

이현웅, 이석근 _ 장쾌한연합내과의원
(730-824) 구미시 옥계동 834-4
4공단메디파크 3층
T. (054)472-1515 / F. 472-1516

주미 _ 봄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730-824) 구미시 옥계동 834-4
4공단메디파크 4층
T. (054)476-9500 / F. 476-9501

영주시

남윤표 _ 영주밝은안과의원
(750-907) 영주시 영주1동 379-19
T. (054)634-9700 / F. 636-9702

영천시

장재호 _ 새영천건강연합정형외과의원
(770-906) 영천시 완산동 1067-3
T. (054)337-7582 / F. 337-7583

상주시

김채선 _ 우리연합의원
(742-020) 상주시 성동동 645-1
T. (054)533-7600 / F. 533-7620

여범곤 _ 서울내과의원
(742-903) 상주시 남성동 84-49
경동메디칼빌딩 3층
T. (054)536-3804 / F. 536-3806

홍석호 _ 호산나의원
(742-030) 상주시 성하동 8-10
T. (054)535-2779 / F. 534-2779

문경시

이성재 _ 이성재소아청소년과의원
(745-891) 문경시 흥덕동 308-4
T. (054)552-0911 / F. 552-0911

경산시

박소윤 _ 행복한연합의원
(712-110) 경산시 정평동 130-19
T. (053)812-2236 / F. 812-2237

경산삼성병원
(712-706) 경산시 백천동 4-2
T. (053)715-0100 / F. 715-0111

칠곡군

백철민 _ 밝은눈안과의원
(718-805)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89-1
T. (054)971-5700 / F. 977-7275

예천군

김근 _ 중앙의원
(757-802)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50-2
T. (054)655-7771 / F. 655-7772

울진군

김덕용 _ 서울정형외과의원
(767-801)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82-4
T. (054)782-1199 / F. 782-8338



• 동원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 신용과 성실을 바탕으로

• 새롭고 한결 같은 마음으로

신용과 성실의 의약품 유통 Since 1968

대한민국 의약품 유통의 표준
(주)동원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표이사

 (주)동원약품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780 | 대표전화 053)381-5555 | 팩스 053)381-6658 | 홈페이지 <http://www.ipharmkorea.co.kr>

원료부터 우리기술~

위장관 운동 개선제!

- 식전 또는 식후 모두 투여 가능
- 인슐린 감수성 및 혈당 조절능 개선¹⁾
- 유즙분비, 추체외로계 부작용 거의 없음²⁾³⁾

모사잘[®] 정
(구연산모사프리드이수화물)



Reference

1) N. Ueno et al., Diabetologia 2002; 45: 792-797, 2) 일본의약품집, 3) M. Tonini et al., Aliment Pharmacol Ther 2004; 19: 379-390